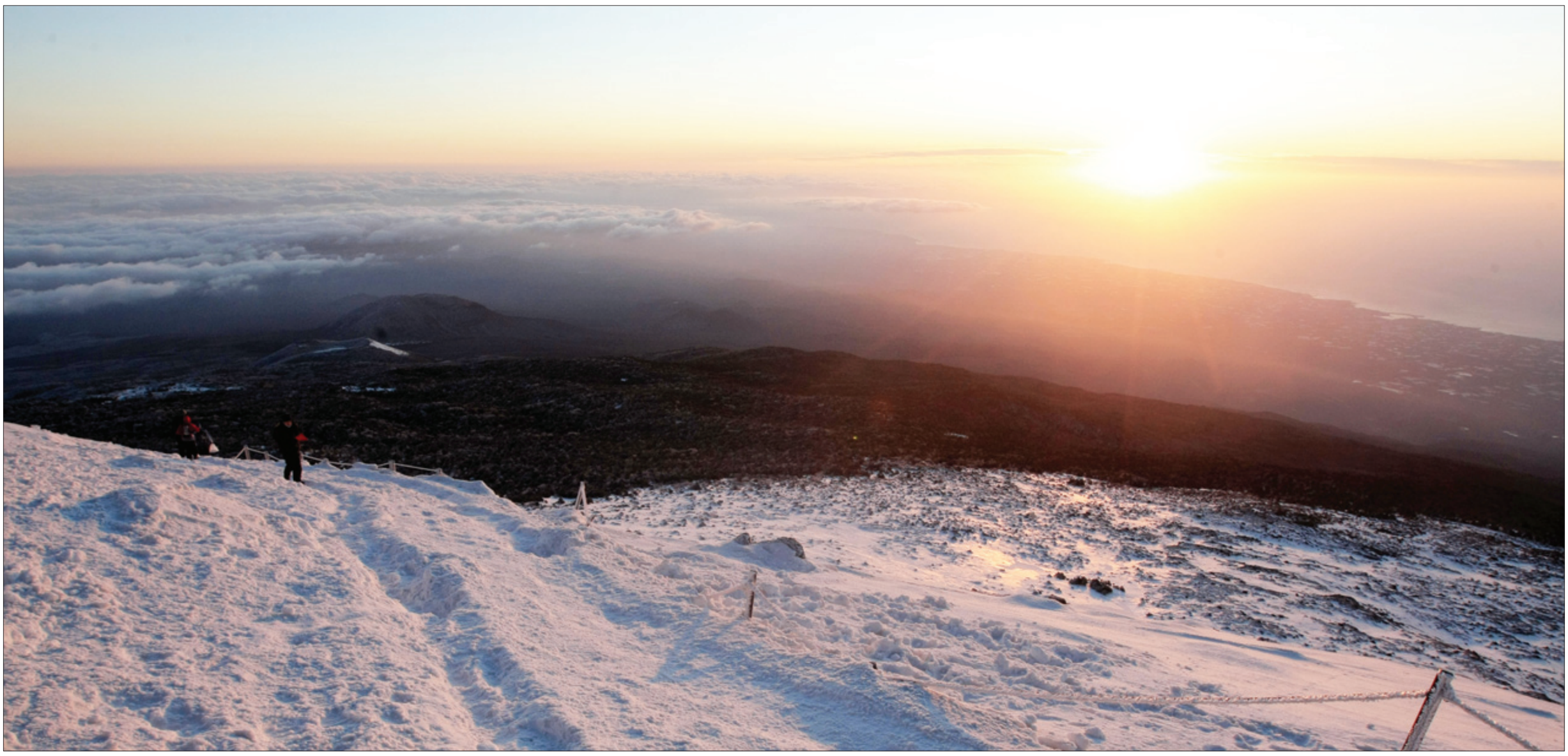
만고에 우뚝한 한라의 영산 / 어리인 정기로 빚어낸 인걸 / 세기는 부른다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진리의 탐구자 / 오, 우리는 문명의 선구자 //
한라산 허리에 바람이 일며 / 태평양 기슭에 물결이 칠 때 / 가슴이 뛰는다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문화의 창조자 / 오, 우리는 역사의 건설자 //
진실 봉공 협동과 진취 / 우리의 갈 길은 여기에 있다 / 헤치고 나가자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민중의 지휘자 / 오, 우리는 조국의 계승자

제주대신문

진리
정의
창조

1954년 5월 27일 창간 (주간) news.jejunu.ac.kr |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제930호



백록담 동릉의 일출 이제 곧 새해다. 오늘 뜨는 해가 내일과 다르진 않지만 한 해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것은 조금 특별하다. 을미년 한 해 떠오르는 일출처럼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희망이 떠오르길 고대해 본다. 강정효 사진작가(경제학과 84학번)

신년 축시

을미년(乙未年) 아침에 띄우는 편지

김 광 렬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자신의 세포를 깨워 일으키기 위한 것
나 여기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무가치한 것들로부터 탈피하려는 것
결국은, 존재의 집을 짓는 것

없는 길 만들며
파도와 파도가 함께 물밀려오는 것은
싸우기 위한 것
자기 자신의 나타(懶惰)와 세계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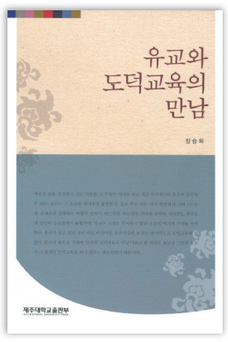
괴로워하지 않으면 젊음은 없는 것
새순이 땅을 비집고 나오듯
두터운 어둠을 뚫고 나가기 위해선
괴로워하지 않으면 안 되느니
괴로움은 나를 키우는 가장 친근한 벗

자유니 정의니 창조니 하는 것들도
지상의 그 어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들도
진통이 낳은 자식들이니
진통이 키운 후예들이니
껍질이 깨어지는 아픔에게 오히려 감사할 것

그리하여 묵은해는 가고 새해는 오는 것이니
제주대인들이여,
썩은 살 오려내듯 을미년에는
온몸으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우뚝 설 것

△ 1988년 〈창작과 비평〉 봄호로 등단.
△ 시집 『가을의 詩』, 『풀잎들의 부리』, 『그리움에는 바퀴가 달려 있다』.

제주대학교 출판부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 064)754-2275 팩스 064)702-0549 http://press.jeju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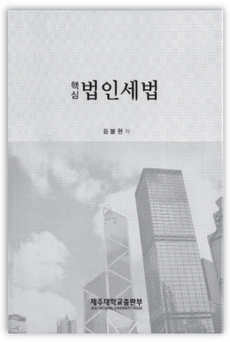


유교와 도덕교육의 만남

| 장승희 지음 | 477페이지 | 23,000원 |

매순간 삶을 결정하는 것은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소소한 일상일 수 있다. 입고 먹고 자는 데서 출발하여 나와 너·우리·존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친다.

『유교와 도덕교육의 만남』은 유교사상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도덕교육에 있음을 강조하며 오늘날 도덕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다. 유교의 현재성을 찾고 그 도덕교육적 의미를 탐색한다. 유교의 도덕교육적 위상을 점검하고 다른 영역들과의 통섭을 추구한 연구들을 정리했다.



핵심 법인세법

| 김봉현 저 | 228페이지 | 15,000원 |

법인이 기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실무에 대해 필수 세무처리 사항을 중심으로 법인세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법인의 세무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핵심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루었고, 법인세법의 개론적 내용을 학습하고 예제를 통하여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보다 쉽게 법인세실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법 강의

| 수정 증보판 | 김현수 저 | 517페이지 | 20,000원 |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국가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수사와 재판 및 형 집행을 통하여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단계에서의 일정한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하는 바 이와 같은 절차를 규율하는 법을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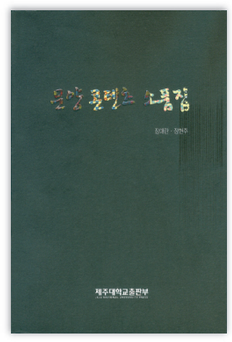
『형사소송법 강의』은 판례의 동향과 학설의 흐름, 그리고 관련 개정 법률의 내용을 보충한 형사소송법 교재다. 형사소송법 강의를 쉬우면서도 능률적이고, 특히 중요 판례의 요지를 가급적 많이 인용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의·생명과학의 법·윤리적 이해

| 개정·증보판 | 김향미·손영수 공저 | 387페이지 | 20,000원 |

의학은 인간의 건강의 증진과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복무하는 학문의 영역이다. 의료윤리학은 의료 와 의·생명과학의 연구와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윤리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의학내의 한 분야이라고 할 수 있다.

『의·생명 과학의 법·윤리적 이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환자·의사·사회Ⅲ 과목의 강의 주제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의료윤리의 원리부터 설명의무의 법리, 인간생체실험, 의료법리 사례평석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문양 콘텐츠 소품집

| 장애란·장현주 지음 | 98페이지 | 12,000원 |

최근 전통문화원형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제주도는 지리적·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그 내용이 독특하고 풍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채 고유한 모습으로 간직되어 왔기 때문에 제주신화야 말로 문화콘텐츠의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 될 수 있다.

『문양 콘텐츠 소품집』은 제주신화, 제주이미지, 문자도 문화원형을 응용한 문양 콘텐츠 소품집이다.

사 설

왜곡된 자부심 아닌 본질로 채워야

자기 고장, 학교에 대한 자랑은 지나친 경우 상대방에게 그리고 자칫 자신에게마저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홍보가 결과에 치중하면 종종 객관적 정보 전달,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대상자에게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져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본질에서 멀어진 왜곡된 홍보 사례는 2007년 제주 세계자연유산 지정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는 상당 기간동안 제주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강조하며 수십 수백 개의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그러나 세계자연유산이 제주 전체인지 일부인지 그리고 지정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현수막을 넘어 포스터, 신문기사 등에서도 찾기 어려웠다.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물어 보았지만 지정된 결과가 중요하기에 만족할 설명은 듣기 어려웠고, 대다수는 제주도 전체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것으로 아는 듯 했다.

지정기관인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 설명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문서는 8쪽의 설명과 1장의 지도를 포함한 영어 설명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정 대상과 지정 배경을 재미있게 기술하고 있다. 여러 특성 중 한라산은 생태계 다양성,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카르스트지형의 특성이 나타나는 독특함, 그리고 성산일출봉은 수중폭발분화로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유형이지만 해안침식으로 화산쇄설물누적층이 드러나는 드문 곳으로 지형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교육 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다는 설명을 읽을 수 있었다. 더불어 이들 다양한 화산지형이 좁은 지역에 분포하여 화산지형의 형성 단계를 관찰하기 좋아 연계지정(serial nomination)을 하였다고 적고 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 지정의 배경 내용은 구성원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동시에 홍보도 보다 설득력을 가지게 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제주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자랑, 홍보를 들여다 보자. 홍보 내용은 자랑하고픈 정보를 선별적으로만 보여주고 있어 자칫 왜곡된 자부심과 오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홍보물이라도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만들어 객관적으로 제주대학교의 위상을 알 수 있게 해 자랑할 것은 자랑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제주대뉴스에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업무협약을 했다는 뉴스보다 실제 어떤 활동과 성과가 있었다는 본질적 정보를 보면 구성원이나 외부인 모두 제주대를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자랑꺼리를 하나씩 채우고 만들어 가는 노력도 중요하다.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경우 자연의 가치에 더하여 이와 더불어 살아온 제주인의 삶과 문화에 대한 설명도 더하고, 제주대학교의 경우 교수 충원율이 전국 최고여서 학생들이 교수들과의 질문 답변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실제적인 자랑을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랑이자 홍보가 된다. 제주도와 제주대의 자랑꺼리를 하나씩 본질로 채워가는 한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보자.

불확실속 발전 전략은 변화와 혁신뿐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마감하고 2015년 을미년(乙未年)의 희망찬 새해를 맞았다. 평화와 온화의 상징인 양처럼 대학이 갈등과 대립 없이 평온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제주대는 4·3과 한국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일어나 1952년 4개 학과를 가진 초급대학을 이뤘다. 모두가 어려웠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제주도민의 뜨거운 염원이 있었기에, 도립대학으로 개교가 가능했다. 길지 않은 63년의 역사 속에서 그토록 많은 파란을 겪어온 것도 지방 명문대학에 이르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늘 위기가 곧 기회임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 지금의 제주대를 만들기까지는 대학 구성원들의 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좋은 희망을 품으면 반드시 공감하는 사람, 협조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법이다.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꿈을 통해 지금의 대학 발전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을미년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내재해 있다. 지금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불확실 속에서 걸어가고 있다. 12월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방대들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정원감축에서 큰 부담을 지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며 운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한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정원 감축은 발등의 불이다. 본격화될 대학 정원과 재정지원 감축과 관련해서도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럴 때일수록 대학 스스로가 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판이 짜여야 한다. 더욱이 리더가 치열성이 없으면 대학이 달라지지 않는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바꾸기로 한 것은 지방대학에게는 기회다. 하지만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지난 한세대에 걸쳐 피와 땀, 억척같은 노력으로 일군 보람을 거둬들인다면 금상첨화다.

새해를 맞아 제주대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밝은 빛이 온 누리에 비쳐 세상을 밝히듯 제주대가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돋움해 진리의 금자탑을 쌓고 인류에 공헌하기를 희구하는 염원이 함축돼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 대학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정성을 쏟아준 제대인들이 많다. 우리의 헌신과 열정과 노력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힘이 되고 위안이 되리라 확신한다. 밝아오는 제주대의 하루하루가 눈부신 발전이 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되는 뜻 깊은 2015년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사라캠퍼스 학생식당 생활협동조합 직영 확정

12월 16일 생협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새학기부터 정식·특식 운영… 카페·편의점도 신설

사라캠퍼스 학생식당에 생활협동조합(이사장 고윤희 학생처장 수학교육과 교수, 이하 생협)을 유치하려는 교육대학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교육대학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학생식당 문제가 12월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심의 통과됨으로써 마무리 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생협과 교육대학 간의 수차례 회의가 있었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생협은 사라캠퍼스 학생식당 운영까지 겸하게 되면 적자가 불가피해 직영에 대한 어려움을 표한 반면 교육대학은 학생 편의를 위해 생협의 입주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사라캠퍼스 교수 32명, 학생 377명, 직원 2명이 생협 유치를 위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사라캠퍼스 교수들은 대학본부에서 의무 배식권 구매, 가격 조정 합의 등 협상을 진행했고 대학본부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생협의 입주를 촉구했다. 이에 생협에서도 기존의 부정적 입장에서 돌아서 직영을 결정했다.

생협은 기존 식당의 계약만료 기간인 1월 16일 이후 식당의 리모델링을 진행, 2월에 시범운영을 갖고 3월 2일 개강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식당 면적 185.28㎡에서 좌석수를 넓히기 위해 매점 위치까지 식당을 확장(231.28㎡)하고 매점은 교사교육관의 글로벌 라운지로 옮긴다. 식당 메뉴의 가격은 특식 4000원, 정식 3000원으로 결정됐다. 기숙사 식사의 경우 아침·저녁 모두 의무식으로 3000원에 판매된다. 또 글로벌 라운지에 카페와 편의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본관과 도서관 앞에 자판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준호(초등컴퓨터교육전공 2)씨는 "그동안 학생식당이 음식의 질은 떨어지고 메뉴가 매번 같아 불만이 많았다"며 "생협이 들어오며 드디어 학식다운 학식을 먹을 수 있을 거라 기대돼 기쁘다"고 말했다.

고윤희 이사장은 "의견 수렴과정에서 이사회 통과까지 많은 난관을 넘은 끝에 생협 직영이 결정됐다"며 "구성원들이 생협을 많이 이용해 경영에 대한 기존의 우려를 씻어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부찬우 기자

대학운영과 발전전략 위한 2014학년도 연찬회

기성회계 폐지로 예산 문제
자체 삭감 또는 축소 운영 계획

12월 11일 해양과학대학 4호관에서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2014학년도 연찬회가 열린 가운데 허향진 총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4년 제주대 연찬회가 12월 11일 해양과학대학 4호관에서 열렸다.

연찬회는 2014년 대학운영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고 2015년 기성회계 폐지에 따른 재정압박 등에 따른 대응책, 대학의 운영방향과 실천전략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선 본부 및 총장 직할 13개 기관에 대한 부서별 전략사업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기성회계 폐지에 따른 예산의 편성 문제에 관해 재정과는 △운영비와 사업비 30~70% 삭감 배분 △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배분 △각 학과별 사업비는 CK 특성화 대학부문 지원액 활용 △본부 각 부서별 사업비는 CK 특성화 대학부문,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국립대학혁신사업 등의 사업비 적극 활용 △예산 형평을 감안한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삭감 또는 축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학사과는 △성적관리 시스템 개선 △교수계획서 표준화 및 활용 등을 계획으로 발표했다. 성적관리 시스템 개선이란 현재 절대평가로 진행되고 있는 몇몇 과목들에서 A학점 성적 인플레 현상이 심각해 A학점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준상대평가를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날 2015학년도 대학의 경영목표도 제시됐다. 주요 경영 목표는 △지속 가능한 대학발전을 이끌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 구축 △구조개혁 추진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지역거점국립대학 역할 강화 △모든 대학구성원이 소통과 협력을 갖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학문화 창출이 제시됐다. 김해건 기자

간호대학, '간호학 학사학위 평가' 인증

간호대학(학장 박은옥 간호학과 교수)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한 '2014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간호교육의 질적 성장과 간호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평가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여건, 교육성과 등이 국가, 사회, 간호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맞는지 판단 후 이뤄지게 된다.

기존 간호사 국가시험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응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2010년 의료법 7조(간호사면허)가 개정돼 2017년부터는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과한 대학의 졸업생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간호대학은 지난 2년간 간호교육인증을 준비했다. 9월에는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했고, 11월에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부터 △비전 및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교육성과 등 6개 영역 32개 항목에 대해 현지 평가를 받았다. 김해건 기자

사 령

김상헌(초등사회과교육전공 1)
수습기자에 임명함
이상 1월 1일자

제주대신문

2015학년도 대학입학 박람회

12월 4일 서울 코엑스서 열려

제주대는 12월 4일부터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에 참가해 수도권을 비롯한 도외 지역 우수학생 유치활동을 벌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제주대를 비롯해 전국 130개 대학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제주대는 박람회 기간 중 홍보부스 2개를 운영해 도외 지역 수험생, 학부모, 진학지도교사 등에게 올해 정시모집에 관한 입학정보를 제공했다. 행사기간 동안 1200여부의 정시 전형 홍보물이 배부됐고 직접 상담 인원은 600여명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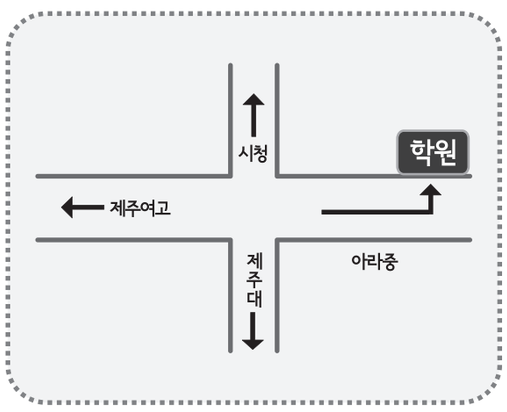
부찬우 기자

한국중부발전(주) 장학금 2000만원 전달

한국중부발전(주)(사장 최평락)은 12월 15일 공과대학 2호관에서 공학교육혁신센터 우수학생 14명에게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중부발전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이같은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또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 중부발전트랙은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주)한국중부발전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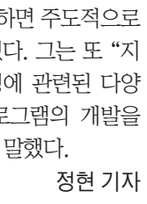
전달식에는 신영주 제주화력발전소장을 비롯한 중부발전 관계자와 강민제 공과대학장, 안기중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승규 기자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사람들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선출
김동욱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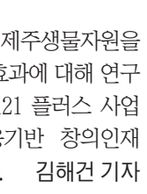
김동욱(회계학과) 교수가 12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한국정부회계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교수의 임기는 2016년 1월부터 1년이다.

김 교수는 2002년 학회 창립 초부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재무보고서 등과 관련한 실무적·정책적 조언을 해왔다. 또 학회를 통해 국가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한국정부회계학회는 회계와 행정학자들이 협력해 회계학과 행정학 지식을 융합하는 정부 회계·재정관련 전문 학회다. 학회 산하부설 정부 회계연구원을 설립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에 예산 및 회계 정책지원도 수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부회장으로서 올 한 해 동안 회장을 보좌해 그 업무를 2016년 회장 임기가 시작하면 주도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 재정과 중앙 재정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 기자

한국지형공간학회 회장 선출
이병걸 교수



이병걸(토목공학과) 교수가 12월 16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제22차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총회에서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교수의 임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1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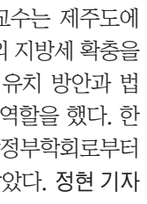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는 3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토의 지형 및 공간정보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방사선생명과학회 학술상 수상
현진원 교수

현진원(의학과) 교수는 12월 5일 서울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개최된 방사선 생명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방사선 생명과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학술상을 수상했다.

현 교수는 수년간 제주생물자원을 이용한 방사선 방어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현재 BK21 플러스 사업팀장(세포활성 응용기반 창의인재 양성팀)도 맡고 있다. 김해건 기자

한국지방재정학회 학술상 수상
민기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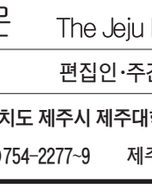


민기(행정학과) 교수가 12월 11일 한국지방재정학회 2013·2014년도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민 교수의 논문 중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리방안'이 제시한 지방재정의 채무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정책 대안의 우수성을 인정해 민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민 교수는 2009년부터 BTL 사업으로 알려진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이 지방재정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재정 건전성에 위험요인이 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2013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BTL 채무를 관리채무에 포함했다.

민 교수는 제주도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재정진단제도의 공동팀장을 맡아 제주도의 지방재정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민 교수는 제주도에 매년 1000억원 상당의 지방세 확충을 가능케 한 리스차량 유치 방안과 법적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한편 2006년 한국지방정부학회로부터 우수논문학술상을 받았다. 정현 기자

지방대학 육성위원 위촉
양영오 교수



양영오(수학과)교수가 12월 2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지방대학 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2년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방대학 육성위원회는 정부 수립 이후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최초로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로 지방대학, 지역인재 육성지원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총괄적으로 심의·조정한다.

양 교수가 참여하는 이번 지방대학 육성위원회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광역자치단체장, 지방대학 총장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김해건 기자

명예경영학 박사학위 수여
고추월 대표

고추월 ㈜월자포장 대표가 12월 19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주대는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제주의 청정환경 보존,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고 대표를 명예경영학 박사학위 수여 대상자로 선정했다.

고 대표는 제주의 대표적 여성기업인이며 제주대 발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1억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1984년 월자포장을 설립한 고 대표는 농민들에게 저렴한 골판지 포장상자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최고경영자상, 대통령표창 등 다수의 상을 받기도 했다. 정현 기자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최낙진 편집국장 강경태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u.ac.kr

교직원 자녀 매학기 발전기금에서 장학금 지급

자녀사랑장학금으로 지난 3년간 1억원 이상 지출

학내구성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장학제도 필요

제주대가 매년 발전기금 중 장학기금의 상당 부분을 교직원 자녀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신설된 자녀사랑장학금은 교직원 자녀 중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명당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2010년에는 4000만원, 2011년 8000만원, 2012년 1억500만원, 2013년 1억1700만원, 2014년 1억1500만원으로 매년 지급액수가 지속적으로 늘었다.

학칙에 따르면 발전기금은 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지은(생명공학부 2)씨는 "사립학교는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발전기금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립대의 경우 학교에 기여하는 용도로 써야할 발전기금을 교직원 자녀에게 쓰는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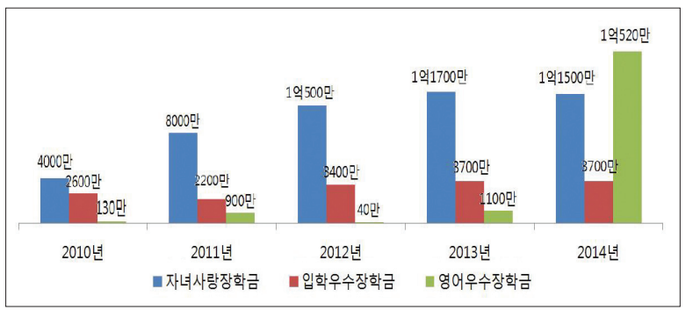
일반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자녀사랑장학금과 성적우수 C급 장학금의 자격조건은 직전학기 12학점 평점평균 2.7이상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자녀사랑장학금은 신입생의 경우 자격 없이 전원지급하고 재학생의 경우 성적우수 장학금과 달리 선발 인원 범위 내 전원 선발한다. 그 결과 2014학년도 2학기에 대상(신청)인원 59명 중 54명이 장학금을 수령해 선발률이 92%에 달했다. 또한 C급 장학금은 수업료(평균 40만원)만 면제해주지만 자녀사랑학금의 경우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문영숙 학생복지과 실무관은 "기부자가 장학의 용도로 기부한 발전기금을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자녀사랑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성적 우수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므로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 지급액이 줄어서 격려성 장학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남진열(행정학과) 교수는 "이같은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선별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며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든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장학금의 성격을 되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나 수용 가능한 기준으로 장학금을 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제주대는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교직원과 그 가족의 제주대병원 진료비 감면을 축소할 것을 권고 받아 감면 혜택이 없어졌다.

전지민 기자



2010년에 신설된 자녀사랑장학금은 매년 높은 수치로 상승했다. 반면 입학우수장학금과 영어우수장학금은 낮은 수치를 보였다. 2014년은 교육역량강화사업 폐지로 발전기금에서 영어우수장학금이 전액 지급됐다.

지속적 성장 가능한 대학의 초석 마련

총장 신년사

허향진 총장

존경하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지난해 우리 대학은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고 세계 대학과의 경쟁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지방대학의 한계를 넘어 변방의 섬이었던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데 주체적인 선도역할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난 한 해 급격한 대학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창조적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부문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원 감축을 포함한 합리적인 대학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당장의 아픔은 있지만 그 당위성에 대한 대학 구성원 모두의 공감과 대승적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의 장점 중의 하나는 전국대학 전체 4위에 해당하는 교육여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도 총력을 다했습니다. 수의과대학 신축, 체육관 리모델링,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완공과 더불어 생명자원과학대학 본관 건물도 올해 완공을 목표로 착공했습니다.

국책사업 유치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평가에선 2년 연속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아 연간 51억 원의 국고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대학특성화(CK-1)사업에도 5년간 180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도 5년간 70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할 국제적 소양과 능력을 갖춘 글로컬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주 사회와 시대가 지역유일의 종합국립대학인 우리 대학교에 요구하는 사명입니다. 지난해 3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해외 자매대학에서 수학했고 우리 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700여 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총장에게 부여된 과제 중의 하나는 발전기금 유치입니다. 이는 대학발전의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발전기금 천억원(1067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발전기금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한 느낌을 주지만 최근 몇 년처럼 어려웠던 시기 또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등록금을 통한 대학재정이 개선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육 및 연구여건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발전기금 유치가 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발전기금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2014년도 취업률은 거점국립대 상위권을 유지했고,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률은 95.1%로 전국 1위를,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에선 100%의 합격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에선 단일대학으론 전국 최고 수준인 5명이 합격하는 등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중앙일보 평가에서 2013년 39위에 이어 2014년에는 37위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주관적 성향이 강한 대학평판도 부문을 제외하고는 29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20위권 진입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같은 성과는 대학가족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루어낸 성과로서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대학 가족 여러분!

혁신은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 없는 변화는 정체를 의미하며 미래에 더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치열해지는 우수 신입생 유치, 지역발전 선도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 대학의 혁신과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은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창조적 파괴를 통한 대학체질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의 추진, 성과 지향적 교육정책 기조, 기성회계 폐지에 따른 대학의 재정 자율성 제약, 반값등록금에 따른 재정 압박 등은 우리에게 더욱더 전략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치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합니다.

기존의 체질화된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과감히 폐기하고 합리적인 대학체질 개선을 통해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대학으로서의 초석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2015년에는 '지속 가능한 대학발전을 견인할 역량 구비와 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대학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4대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시아의 명문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한 'JNU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직 재설계를 통한 효율적 행정시스템 마련, 성과지향적 인사체제 구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학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외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환경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에 필요한 규정 제정, 국책사업 유치 '토탈 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평가관리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산업과 창조경제 견인자로서의 역할 수행, 지역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양성, 지역선도대학 사업의 모범적 추진을 통해 지역거점대학으로서의 맡은 바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새로운 대학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대학 구성원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가족과 같은 일체감을 갖고 대학을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행복한 대학공동체 문화'가 조성돼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제대인 프라이드 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 세계 제주대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캠퍼스 조성 사업을 벌이고자 합니다. 이는 대학의 시설과 공간적인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등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 가족 여러분!

논어(論語)에 '인심제 태산이(人心齊 泰山移)'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태산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학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우리의 위대한 꿈인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 대학은 앞당겨 질 것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제주대학교 가족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학년도 정시모집 결과 8342명 지원

평균 4.54대 1 경쟁률 기록

수시모집은 614명 등록

제주대는 2015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지원 결과 총 1837명 모집에 8342명이 지원해 평균 4.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경쟁률 3.11대 1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정시모집은 전형일자에 따라 모집시기를 구분해 나군과 다군으로 분할돼 진행됐다.

나군의 총 모집인원은 772명이며 총 지원인원은 2445명으로 평균 3.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상대학의 경영정보학과가 평균 5.3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해양과학대학의 해양생명과학전공이 5.17대 1로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다군의 총 모집인원은 1065명이며 총 지원인원은 5897명으로 평균 5.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육·간호·수의과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 중 사범대학의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전공이 평균 5.5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육대학의 초등교육과는 평균 21.56대 1, 수의과대학의 수의예과는 평균 21.26대 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간호대학의 간호학과는 평균 3.91대 1의 경쟁률로 일반학과의 경쟁률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석사통합과정으로 준비된 의학과는 다군에 포함돼 있다. 모집인원은 16명이며 총 지원인원은 228명으로 평균 14.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은 구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원이 200명 미만인 학과의 정시 분할모집을 폐지했다. 지난해까지 가·나·다군에 같은 학과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불가능해진다.

한편 제주대 수시모집 결과 총 681명이 합격했으며 614명이 등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형별로 일반학생 437명, 고른기회 60명, 예체능특기자 33명, 농어촌학생 51명, 특성화고출신자 34명, 기회균형선발 41명, 특수교육대상자 22명, 특성화고졸재직자 3명이 합격했다.

또한 제주대는 합격자와 함께 예비합격후보자 1차 195명, 2차 303명도 발표했다. 수시입학정원에 충당하지 못한 합격인원 52명은 정시모집인원으로 이월됐다. 입시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입학관리과(☎754-2043~5)

백승규 기자

스마트 교육 및 체험활동 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

교육대학(부총장 김익상 초등영어교육전공 교수)과 ㈜글로벌코칭교육원(대표이사 김덕기)·㈜인스에듀테인먼트(대표이사 서봉현)는 12월 18일 교육대학에서 스마트 교육 및 체험활동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스마트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창의적인 초등 스마트체험 프로그램 활동 협력 및 추진 △지역 역사 및 문화콘텐츠와 연계한 스마트체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스마트교육용 앱 개발 및 스마트교육 관련 방과 후 지도사 양성 방안 연구·개발 등에 협력키로 했다.

백승규 기자

제주양채류 RIS사업단 농식품 유통위한 업무협약

제주양채류 RIS사업단(단장 임상빈 식품생명공학과 교수)과 한국농식품6차산업협회(회장 김성수), 한국친환경영농조합법인(대표 양형모)은 12월 23일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서 농식품산업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채류 활용제품 등 각 기관 관련 기업제품의 공동마케팅, 6차산업 연계 기업체 교육을 통한 산업체 인력양성, 공동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등 한국 농식품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주양채류RIS사업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부찬우 기자

2015 학사제도 개편… 휴·복학, 성적, 출석 등 대대적 변화

절대평가 A학점 50% 이내

학사과(과장 이애시)가 12월 15일 2015년 달라지는 학사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휴·복학과 전과, 수강신청, 출석, 졸업 등 학사제도 전반에 변화가 이뤄졌다.

시험·성적평가에서 학부생의 경우 절대평가시 A학점 비율을 50% 이내로 한정한다. 또 시험지 보관은 보관주체가 담당교수에서 전임교원으로 바뀌며 보관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출석인정에서 공결은 출석으로 인정되고 기존의 생리공결은 여학생 보건 결석으로 처리한다. 공결은 사전 또는 발생일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사망에 한해 인정됐던 경조사 항목은 결혼, 출산, 입양 등으로 확대된다.

전과는 학생이 전과원서를 학사과로 제출하던 방법이 하영드리미를 통해 신청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또 주간과 야간 간의 전과가 현행제도보다 원활해진다.

특수학과·대학에 대한 개정도 대폭 이뤄졌다. 종전에 수의예과에 한해 2학기 였던 휴학 한도를 4학기로 늘리고 건축학전공은 10학기, 학부생은 현행과 같이 휴학(8학기) 할 수 있다. 또 대학원 휴학 관련 조항도 추가됐다. 수의학과, 간호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허용됐던 역학기 복학은 제한된다.

한편 수업연한이 학사 3.5학기와 석사 1.5학기 등 총 5학기인 학·석사 통합 연계과정이 신설됐다.

전지민 기자

민관학이 주목하는 '사회적 자본' 정책토론회 열려

"올바른 마을 만들기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해야"

12월 16일 평생교육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회적자본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곽현근 대전대 교수가 사회적자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육성방안 정책토론회가 12월 16일 평생교육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곽현근 대전대 교수가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바라본 지역공동체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으로 주제 발표했다. 이어 강호진 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 김경학 제주도의원, 김경희 중앙대 교수, 민기(행정학과) 교수, 오택진 제주일보 논설위원, 지금종 조랑말 박물관 대표이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간의 관계를 학문적 용어로 일컫는 말이다. 사회적자본이 발달된 국가일수록 각종 분야에서 긍정적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높은 행복지수와도 연결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곽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동네, 마을에서 주민들 사이의 관계가 결과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전략이다"며 "우리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자발적 결사체, 주민조직들이 서로 유대를 다지는 것이다"고 말해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성과 위주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거안정성을 높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회적 자본형성에서의 도정과 도의회의 역할, 현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의 오류 비판, 제주도 마을 만들기에서 원도심의 중요성과 그 제도 개선, 사회적 자본의 낭만화 우려 등 다양한 목소리로 대화가 이뤄졌다.

전지민 기자

제주대신문동우회, 이석문 교육감 초청 제12회 제주지성 간담회 개최

"경쟁과 서열에서 협력과 배려의 교육문화로 바꿔야"

12월 5일 제주대신문동우회 주최로 열린 제12회 제주지성 초청 간담회에서 김동주(전 제주KBS총국장) 동우회장이 이석문 교육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아이들의 행복은 정책과 제도만 좋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경쟁과 서열 중심의 교육문화'를 '협력과 배려의 교육문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동안 교육청과 관료 중심으로 향했던 제주 교육의 시선을 학교현장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제주대신문동우회(회장 김동주, 전 제주KBS총국장)가 12월 5일 주최한 제12회 제주지성 초청 간담회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제주교육의 혁신과 미래비전'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 교육의 특징을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고입제도와 이에 따른 비교육적인 부작용, 주요대학 입학률 침체, 입시 위주 평가와 수업방식,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수 등을 꼽을 수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중심을 학교현장으로 재편하며, 중학교까지 경쟁을 완화하고, 고입 탈락구조를 개선하는 등 각종 평가와 수업방식에 변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또한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해 고입제도 개선과 고교체제 개편, 국제학교 수준의 공교육 실현, 읍·면 학교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복원, 무상의무교육 점진적 실현 등의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겠다"면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분명히 진통이 있을 것이지만, 제주 교육의 발전과 희망으로 향하는 길에 겪는 성장통이기에 즐겁고 행복한 부담으로 받아들이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이석문 교육감과 동우회 회원들이 제주교육의 현안·발전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교육감은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고언, 제안 등을 받으며 소통의 거리를 좁힘은 물론 앞으로 제주교육이 추진할 교육지표와 비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제주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혔다.

한편 1954년 창간한 제주대학교 신문사 출신 회원으로 구성된 '제주대신문동우회'는 1976년 5월 발족돼 그동안 모교 발전 사업과 대학신문 지원을 위한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회보 발간 등의 사업을 펼쳐왔으며, 매년 한 차례 제주지역의 리더를 초청, '제주지성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허향진 제주대 총장, 우근민 전 도지사, 신구범 전 도지사, 김태환 전 도지사, 장정언 전 국회의원, 강정은 전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제34회 백록학술상 당선 논문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과정 연구

- 입지를 둘러싼 갈등 해결 과정과 갈등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김예사(일반사회교육전공 3)·고명수(일반사회교육전공 3)·강솔이(일반사회교육전공 2)

목 차

Ⅰ. 서론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방법

Ⅲ.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 이론적 배경
2. 분석틀

Ⅳ. 입지를 둘러싼 갈등 해결 과정과 갈등 요인분석
1. 갈등 해결 과정
2. 갈등 요인분석

Ⅴ. 결론

〈참고 문헌〉

Ⅰ. 서론

산업혁명 이후 과학과 산업의 발달은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준 반면 재화의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다양한 환경문제를 야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산업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문제를 비롯한 환경오염문제가 날로 심각해졌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필연적으로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목표로 광역쓰레기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역이미지 저하, 쓰레기 냄새, 환경 파괴 등과 같은 이유로 쓰레기매립장이 유해·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매립장 신설예정지 주위의 주민반대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간의 입지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쓰레기매립장 입지 후보지는 환경적 피해와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선정해야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집행은 지역주민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환경처에서는 1996년 7월 9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13조 ①설치·운영기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범위가 결정된 때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계획을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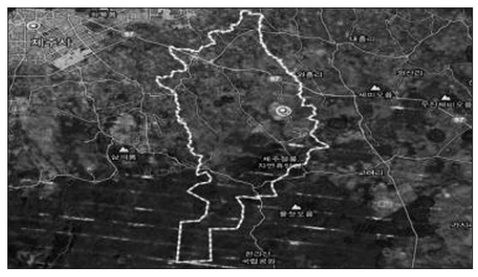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은 1992년 처음 건설되었고 2001년에 1차 연장을 함으로써 2011년까지 사용하기로 하였다. 쓰레기의 무분별한 매립으로 피해가 심각해지자 2007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행정과 4년간의 투쟁의 결과 2011년 제주시와 쓰레기매립장 사용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지역주민은 주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방정부에게 협약 내용을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지방정부도 환경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하여 주민들과 소통하였다. 그 결과 2014년 4월 30일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으로 구좌읍 동복리로 결정하여서 이전을 준비 중에 있다. 최근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간의 사후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입지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던 갈등 해결 과정을 알아보고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사이에 나타난 갈등 요인을 주민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과 범위

봉개동의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동남쪽 중산간에 있는 지역이다. 동쪽은 회천동, 서쪽은 용강동, 남쪽은 한라산, 북쪽으로는 도련1동과 접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해발 고도 약 100~650m 사이의 완만한 평지를 이룬다. 물장오리, 개월오름, 거친오름, 안생이오름, 밭생이오름 등 여러 개의 측화산이 분포하고 있으며, 삼수천, 음나물내, 버으내 같은 건천이 남쪽 한라산의 기슭에서 발원하여 북쪽 바다로 흐른다. 조선 시대에는 제주목의 중면에 속한 '봉개악리'였다가 1914년에 '봉개리'가 돼 제주 면에 편입됐다. 1955년 제주 읍이 제주시로 승격되면서 봉개동·회천동·용강동으로 분리되었다. 1962년 행정이 개편되면서 봉개동으로 통합되었다. 봉개동·회천동·용강동 등 세 개의 법정동이 속해 있다.

〈그림 1〉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위치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은 1992년부터 지금까지 총 23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데 오는 7월에 쓰레기매립장이 포화되면서 도에서는 봉개동을 포함한 새로운 쓰레기매립장 입지 후보지를 발표하였다. 또한 도에서는 쓰레기매립장 대체부지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공사가 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매립장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과정

1992	-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매립 시작 (10년 후 이설 약속)
2001	- 1차 연장 10년 연장 후 이설 약속
2007	- 봉개동 비상대책 위원회 발족
2011	- 제주시 봉개동 회천매립장 운영협약서 체결(3.22.) : 2차 연장(4공구매립종료 시 이설협약)
2012	-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2013	- 광역폐기물 입지 후보지(제1후보지)선정 공고
2014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폐기물처리(매립·소각)시설 동복리 이전 확정

이에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만 2011년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사용 기간을 연장하면서 도와 맺은 협약서 제4조 1항[매립장의 사용기간은 4공구 매립종료(2016년 예정)시까지로 한다.]과 제4조 2항(2011년부터 안정적인 폐기물매립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매립후보지 확보를 위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한다.)이 먼저 제대로 지켜질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 구좌읍 동복리로 이전이 결정 나면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갈등이 갈등 양상이 해결 되고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문헌연구법과 심층면접법 그리고 질문지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문화현상에 대해 기존의 역사기록, 연구기록, 통계자료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말한다. 문헌연구법은 선행연구자료를 얻기가 용이하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정보 수집이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1992년 당시 입지선정과정과 현재까지의 입지정책 전개양상, 그 양상 과정에서 생겨난 지방정부와 주민의 약속을 상징하는 협약서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심층면접법은 연구자가 연구대상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질문에 대해서 연구대상이 생각하는 가치, 경험 등과 비언어적 표현까지도 파악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4년 4월 17일 봉개동 사전답사에서 대책위원회 기획부장님을 통해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봉개동 주민들의 경험 및 현재 봉개동에서 추진하는 주민운동의 계기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후 다양한 갈등 해결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법을 활용하였다. 갈등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므로 심층면접 대상자들에 대한 녹취는 익명으로 하도록 하겠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표 2〉 심층면접 대상자

-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1, 고00씨
-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2, 김00씨
-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3, 송00씨
-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4, 홍00씨
-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관련 공무원

질문지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해 중요 조사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질문지를 만들어 질문지 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말한다. 쓰레기 매립장을 둘러싼 갈등은 그 규모가 크므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조사하기 용이하다. 또한 설문지를 통해 입지선정 갈등 요인에 따른 계량화 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방법은 분석 변수 중 주로 주민참여부분을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또한 2014년 5월 31일~6월 1일에 걸쳐 질문지법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활동 결과 총 106부를 수거하여 통계 분석 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ver. 18을 사용하였으며 주로 빈도분석 결과를 활용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3>와 같다.

〈표 3〉 조사대상자의 특성

사회 인구학적 변수	항목	비율
성별	남자	55.7
	여자	44.3
나이	20세 미만	15.1
	20세 이상~30세 미만	11.3
	30세 이상~40세 미만	10.4
	40세 이상~50세 미만	21.7
	50세 이상~60세 미만	17.0
	60세 이상	24.5
학력	중졸 이하	32.4
	고졸	35.2
	전문대	12.4
	대졸	18.1
	대학원	1.9
거주지	봉개	54.7
	회천	24.5
	전원마을	19.8
	명도암	0.9
거주기간	2년 미만	14.2
	2년 이상~5년 미만	17.9
	5년 이상~10년 미만	10.4
	10년 이상~20년 미만	13.2
	20년 이상	44.3
직업	농어업	30.2
	자영업	23.6
	전문직	8.5
	회사원	5.7
	기타	32.1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특성 중 성별의 분포는 남 55.7% 여 44.3%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40세 이상이 63.2%로 대부분이 중장년층 혹은 노년층임을 알 수 있다. 거주지를 살펴보면 봉개가 54.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회천은 24.5%, 전원마을은 19.8%, 명도암은 0.9%로 나타난다. 거주기간은 20년 이상이 44.3%로 가장 많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직업군 별로 보았을 때는 농어업과 자영업이 많은 편이었고 그 외 기타 직업도 32.1%로 많이 나타났다.

Ⅲ.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이론적 배경

(1) 혐오시설 입지선정 결정 과정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은 1992년에 입지되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인 지방정부의 여러 정책결정권은 1996년에 시작되었음을 감안한다면 봉개동의 쓰레기 매립장 입지는 정책결정과정을 결정하는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에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 당시 혐오시설 입지결정 과정의 변화를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제 이전의 입지선정 결정 과정>

지방자치제 이전의 입지선정 결정은 DAD모형을 따른다. DAD모형(Decide- Announce- Defend)은 결정 공표 방어 모형으로 입지선정이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공표하여 반대가 없도록 방어한다는 모형이다. 이러한 DAD모형의 결정 방식은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표 4〉 DAD모형의 결정 방식

유형	내용	특징
경제적 접근	최소의 비용과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공간 배치가 어디인지 탐색하는 방법	입지결정시 문제없이 집행이 가능할 경우 사용 계량 경제적으로 입지 지역을 결정함
정치적 접근	정치적 흥정과 타협에 의해서 입지선정을 결정하는 방법	정치적 힘이나 권력 및 시민단체의 힘에 따라 입지지역을 결정함
배제기준 방법	입지로 인한 물리적 자연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지가 불가능한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배제하는 방법	물리적이고 자연적으로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을 결정함
계획기준 방법	합리적인 입지기준과 주민들의 수용가능성을 결합하여 결정하는 방법	바람직하거나 수용 불가능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입지를 설계하고 결정함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입지선정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결정하는 방식에서는 중앙정부가 결정했던 유형과는 다르게 3가지 요소를 검토하여 입지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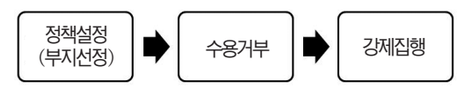
〈표 5〉 지방정부의 입지선정을 위한 검토 요소

요소	세부사항
입지결정 분석적 요소	1)입지결정의 기술적 합리성 2)입지결정 분석기관에 대한 신뢰성 3)입지분석 내용에 대한 충분한 소개 4)다양한 대상후보지 선정 5)관련 법규들의 적절성
입지결정의 정책결정 과정적 요소	1) 입지결정과정 상의 참여 2) 입지에 대한 필요성 인식 3) 입지결정과정 공개성 4) 충분한 보상
혐오시설입지에 대한 행정적 요소	1) 지방정부의 홍보정도 2) 공무원들의 적극적 활동 3)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성

(2) 혐오시설 입지정책의 전개유형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종엽(1997)은 "혐오시설 입지 정책에서의 지방 정부의 대응 양태에 관한 연구"에서 혐오시설 입지정책의 전개유형 4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과정이 초기 강제집행형에서 주민참여형과 협상형으로 바뀌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현재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 과정의 유형이 주민참여형, 협상형에 있다고 전제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2-1〉 강제집행형 입지정책 유형



강제집행형은 이제까지의 실제 사례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주민의 수용거부와 정책결정·집행주체의 기존 정책고수 및 강제집행이 대립관계로 지속되다가 그대로 정책이 집행되는 경우이다.(<그림 2-1> 참조) 물론 이 강제집행형에는 수용거부 주민들을 설득하여 집행하려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아래 두 유형과는 다르게 정책수정 또는 취소의 형태가 아닌 이미 결정된 상태로의 정책을 설득과정을 통해 그대로 집행하려는 경우도 강제집행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유형의 경우 초기에는 온건한 형태의 대응전략으로 시작하지만 곧바로 주민의 수용거부 양태가 주로 물리력 행사 즉, 시위·집회·점거 등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정책결정·집행주체의 집행전략 역시 공권력을 투입하여 검거·구속·진압의 형태로 대립되고 있다. 극한 상태의 대립과 긴장이 계속되면서 양주체간의 공방이 지속되기는 하나 결국에는 정책주체의 정책진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림 2-2〉 주민참여형 입지정책 유형

주민참여형은 수용(거부)전개과정상에서 가장 높은 역동성을 보이는 유형으로 주민의 이익이나 주장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에서 나타난다(<그림 2-2> 참조). 최초의 정책결정은 정부 및 자치단체의 일방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민의 거센 수용거부에 직면하게 된다. 수용거부과정에서 주민은 진정·청원서 제출, 전문가 협조, 환경단체들과의 연대, 시위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정책결정·집행주체는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수용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획득한 정책수용은 어느 정도 안정된 형태로 지속되어 특정의 사건이 발발되지 않는 한 지속되고 정책집행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림 2-3〉 협상형 입지정책 유형

협상형은 주민참여형과 같은 동일한 선행과정을 거쳐, 정책수정의 형태인 정책결정·집행주체와 정책수용주체간의 협상을 통해 정책수용을 확보하는 유형이다(<그림 2-3> 참조). 사실 실제 사례에서는 주민참여와 협상이 동시에 추구되어 '주민참여를 통한 협상'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논의 전개상의 필요에 의해 어느 측면이 더 부각되느냐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주로 협상은 경제적 보상체계 및 보상수준을 둘러싸고 수용거부가 발생하는 사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민참여는 부지선정이나 혐오시설의 안전성 등을 수용거부원인으로 등장하는 사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협상형 역시 주민의 정책수용을 안정되고 지속적 상태로 확보·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위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은 정책집행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혐오시설 입지정책의 입지유형이 초기건설 당시에는 강제집행형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기간에는 협상형과 주민참여형의 전개과정 중 정책수정단계와 협상단계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현재는,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수정과 협상이 잘 이루어져 정책수용단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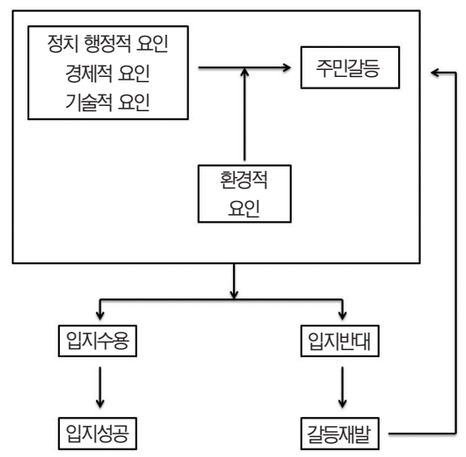
(3) 지방정부와 주민 간 입지갈등 요인

울산대학교 김도희(2001) 교수는 정치 행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 기술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 네 가지 요인이 주민입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각 요인이 주민입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아래 그림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입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의 하위변수를 설명하면 정치 행정적 요인의 하위변수로는 주민참여 입지선정방식 정보공개를, 경제적 요인의 하위변수로는 재산적 가치의 하락 보상을, 기술적 요인의 하위변수로는 시설의 위해성과 사고의 위험성, 시설관리의 정부불신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주민입지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환경적 요인은 입지갈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환경적 요인은 정치 행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 기술적 요인에 있어 시설입지와 관련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명백히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환경적 요인의 하위변수로는 환경단체의 활동과 언론 및 대중매체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그림 3〉 지방정부와 주민 간 입지갈등 영향요인 관계도



2)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해결과정과 갈등요인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논문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먼저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 갈등 해결 과정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과정에서 정부와 주민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주요 초점으로 삼아 분석을 시도한다. 이 질문을 통해 주민들의 입장을 토대로 갈등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정치&행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 기술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렇게 네 가지를 분석변수로 설정했다. 그 하위변수와 분석초점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분석변수	하위변수	분석초점
정치&행정적 요인	신뢰성 문제	약속 이행 여부
	주민 인식	주민 여론
	주민 참여	조직적 행동
경제적 요인	재산적 가치 하락	지역 이미지
	보상문제	보상 방식
기술적 요인	시설 관리	시설 문제
	사후 처리	사후 처리 방식
환경적 요인	환경 오염 문제	쓰레기 냄새 환경 영향 평가
	외부 환경적 요인	행정과 언론의 관심

본 논문에서는 분석변수를 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 요인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 분석변수인 '정치&행정적 요인'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책과 정책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상황을 중심으로 보겠다.

(5면으로 이어짐)

그 핵심은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신뢰성 문제와 주민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두 번째 분석변수인 '경제적 요인'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입지로 인한 재산적 가치 하락과 입지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세 번째 분석변수인 '기술적 요인'에서는 시설관리 문제와 사후처리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네 번째 분석변수인 '환경적 요인'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쓰레기 냄새와 같은 환경오염문제와 외부 환경적 요인에서 행정과 언론의 관심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 볼 것이다.

Ⅳ. 입지를 둘러싼 갈등 해결 과정과 갈등요인 분석

1)갈등 해결 과정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 갈등 해결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7>과 같다.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은 1992년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집행으로 입지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DAD모형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1996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쓰레기 매립장 입지는 정책결정과정을 결정하는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1992년 당시에는 10년 동안 사용하고 이전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2001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는 봉개동에 쓰레기매립장 연장을 요구한다. 이 당시에는 봉개동 이외에 입지 할 곳이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부를 만들어 좀 더 사용하겠다며 주민들과 협상을 통해 10년을 더 연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협상형 입지정책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본부를 만든다는 것은 쓰레기 매립이 깨끗하고 적당한 양이 되도록 관리하고자 함인데 오히려 쓰레기의 무분별한 매립으로 피해가 심각해지자 봉개동 주민들은 2007년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행정과 4년간의 투쟁을 하였다. 그 결과로 2011년 3월 22일 지방정부와 봉개동 주민 간에 '봉개동 회천매립장 운영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협약서는 중요한 내용이 2가지가 있다.

> 첫째로, 지방정부가 봉개동 회천 매립장을 연장하는데 그 기간은 2016년으로 예상되는 4공구 매립 종료 시까지로 정하였다.
>
> 둘째로, 지방정부가 봉개동 주민들에게 환경개선, 소득향상, 복지증진을 약속하였다. 그 방법으로 지역주민숙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한 주민지원사업비를 2016년까지 110억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는 2012년 7월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을 시찰하였다. 시찰 결과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이 2~3년이 지나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는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포화에 대비하여 2012년 8월 입지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 하였다. 입지선정 계획 결정 공고에서 협약서 내용을 불이행하고 봉개동을 후보지로 넣음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다.

지방정부는 봉개동 주민 대표들에게 입지선정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대표를 추천하라는 요청을 보내왔다. 하지만 봉개동 주민들은 봉개동을 차기 입지선정 후보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방정부의 봉개동 후보지 선정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을 지속해나갔다. 이러한 과정은 주민참여형 입지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을 거부하여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4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3곳(구좌읍 동복리, 조천읍 교래리, 회천동) 중 구좌읍 동복리가 가장 유력시 되었다. 그 이유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3곳 중 동복리 지역이 적합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검토 결과 동복리 지역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른 후보지에 비해 오염피해가 적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2014년 4월 29일 동복리에서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주민등록상 마을에 주소를 둔 주민 490여명 중 258명이 이날 투표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로는 찬성 180표 반대 70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이로서 2014년 4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폐기물처리(매립·소각)시설 동복리 이전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주민참여형 입지정책에서 정책수용단계로 볼 수 있다. 동복리로 이전이 확정된 이후 봉개동에서는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이 이전 한 뒤에 성공적인 사후처리와 매립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논의 하에 있다. 사후처리에 관한 논의는 법문으로 나와 있다.

> 법 제 50조 제 1항, 사후처리는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
> 제 50조 제 2항, 사후처리가 필요한 모든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관리자를 둔다.

이 외에도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에 대해서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정부와 봉개동 주민들은 서로 합의와 협력의 과정을 거쳐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하에서 사후처리를 진행해야한다.

2) 갈등 요인

1) 정치&행정적 요인

(1) 신뢰성 문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입지는 1992년에 이루어 졌다. 그 당시에는 중앙정부의 집행으로 인해 DAD모형이 적용되었던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매립지로 선정되었다. 처음 매립장 입지를 선정했을 때는 10년간만 매립장을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그 후 2001년도에 1차 연장을 하여 10년 더 사용하게 된다.

"92년도부터 이게 여름에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강압적으로... 지금은 폐기물처리촉진법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하는 그런 건 없어. 그 당시에 하면, 어느 곳을 정해서 하면 그냥 할 때였으니까.. 90년도에 매립장을 한다니까 봉개동 주민이 거세게 반발했거든요 그때.. 시청에 가서 막.. 데모도 하고 그 와중에.. 그런 시기를 지나서..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공권력에 저희는 질 수 밖에 없고, 그게 연장선으로 갈 순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립장이 계속 운영되고, 그러면서 10년만 처음에 우리 봉개동한테 설명할 때 10년만... 여기 오기 전에 저 위에, 노형 그쪽에 있잖아예? 기존에 매립장이 있었던 디가 가득 차니까 이쪽으로 옮겼는데, 거기 10년 사용했거든요? 10년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처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오니까 1차 연장을 하게 됩니다. 10년을 더 사용하겠다. 다른데도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한 번, 1공구랑 2공구가 있는데 거기다 다 찼는데, 다시 본부 하나 더 만들어서 그때까지만 10년만 사용하겠습니다해서 다시 10년 사용하기로 합니다."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1, 고00씨)

그 후 매립장 주변에 지속적으로 심한 악취 발생으로 인해 주민대책위원회가 결성 되었고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4년간 지방정부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 제주시와 주민대책위원회는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한 4년간,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4년간 행정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싸우는 과정이 2011년에 제주시와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협약서인데, 제주시장하고 우리 봉개동 매립장 대책위원장하고... 2010년도 3월 협약심의라고 하거든요? 그니까 이게 다 봉개동 주민대표로 참여했던 분들인데, 여기 위원장님, 그 당시 위원장이셨고, 지금은 4공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협약서인데, 이 협약을 딴 그때 당시에 불과 2011년 3월 22일이였거든요? 근데 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은 2012년도에 했어요. 여기 보시면 사진을 보면 운영에 대한 게 나왔거든요. 운영은 4공구, 지금 공구가 가득 차면은 그때 당시에는 16년도를 예상했어요."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1, 고00씨)

2011년에 맺은 협약서<봉개매립장 운영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4공구 매립 종료(2016년도 예상)시 타 지역으로 이설한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에 차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에 봉개동을 입지선정 후보지에 포함을 시켜 추진을 하였다. 차기 폐기물 입지선정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신규 소각장 후보지 1순위가 봉개동이고 2순위 역시 봉개동이었다. 또한 매립장 후보지는 새로 봉개동에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매립장을 재사용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래서 봉개동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약서 이행을 강조하며 봉개동은 차기 후보지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봉개동 주민은 2011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것은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협약을 우리가 처리하는 거고. 처음부터 부정하겠다는 거지 협약사항을. 부정하겠다는 거고 우리는 협약 사항을 이행하라! 이거는 이제 일부에서는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비쳐지는거죠. 행정에서 조금 우려하는 것이 확신이 있어서 법적인 그 안 좋은 저기 방법이 안 되거든요 협약이란 것 자체가. 뭐 우리가 아는 노지단체협약이나 그런 거 재판사항 뭐 어떤 효력이 있지만, 행정으로 맺은, 주민들과 맺은 협약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인정받고 효력 받고 그런 건 없거든요?"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2, 김00씨)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주민들은 협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협상에 있어서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와 주민관계에 있어 지방정부가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지방정부에 대하여 신뢰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그게 독일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명문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이 협약이라는 것이 아무리 행정이, 행정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서 법적 안전성 내지는 협의의 일관성 내지는 사회적 안정성.. 이 없어.."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2, 김00씨)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약속이행이다.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 갈등이 나타 날 수 있다.

"간다는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에요. 주민한테 협의하고 그러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거지. 입지 후보지에, 그 후보지, 이게 협약서에 의하면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는 다른데로 갈거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다시 후보지에 집어넣은 거에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후보지 자체에 들어 것을 인정을 못했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아시는, 사회현상 중에 그 님비현상 있잖아예? 이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는 아니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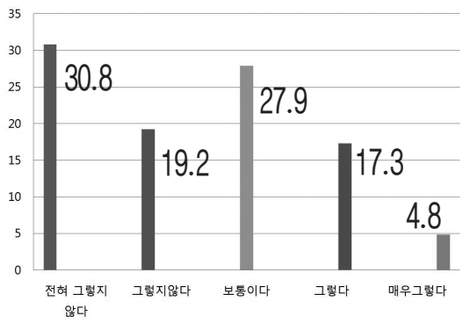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3, 송00씨)

봉개동쓰레기매립장 대책위원회의 주장은 님비현상 때문이 아니라 봉개동을 후보지에 다시 넣지 않겠다는 협약서 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2) 주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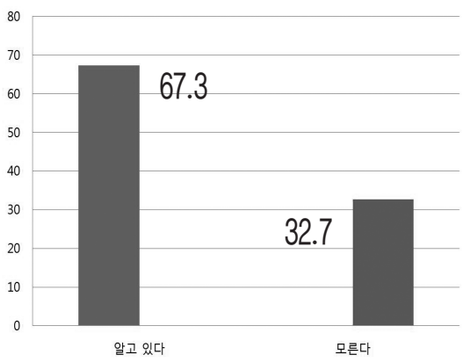
쓰레기 매립장 유지 여부에 대한 주민 의식을 질문지법을 통해 조사해 보았다.

〈표 8〉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유지에 대한 봉개동 주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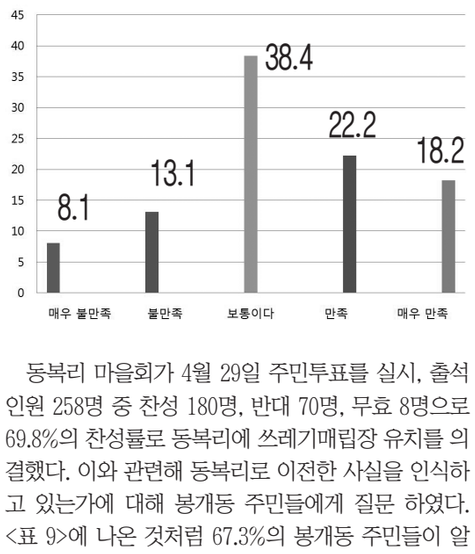


<표 8>를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유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의견이 50% 보통이 27.9% 나머지 찬성하는 의견이 22.1%로 나타났다. 주민들 대부분이 쓰레기매립장 유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으며 소수의 주민들만이 찬성을 하고 있었다. 소수의 찬성하는 주민들의 경우 대다수가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이나 관련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식을 살펴본다면 매립장 유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아 단순히 님비현상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본 결과 주민들의 의견은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이 23년이란 긴 시간동안 지속되었다는 것과 협약서 내용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전되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동복리로 이전에 대한 봉개동주민 인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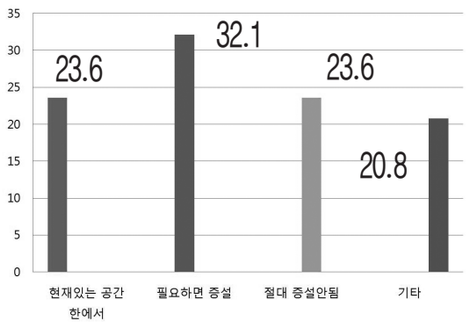


〈표 10〉 동복리 이전에 대한 봉개동 주민 만족도



동복리 마을회가 4월 29일 주민투표를 실시, 출석인원 258명 중 찬성 180명, 반대 70명, 무효 8명으로 69.8%의 찬성률로 동복리에 쓰레기매립장 유치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동복리로 이전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봉개동 주민들에게 질문 하였다. <표 9>에 나온 것처럼 67.3%의 봉개동 주민들이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 표를 통해 본 연구대상에 속하는 주민들은 과반수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와 관련된 만족도를 <표 10>에서 보면 보통이다가 38.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동복리 유치에 대해 만족한다는 반응은 40.4%, 만족하지 않는다는 반응은 21.2%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입장에서는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기대, 협약 이행에 대한 만족 등의 이유를 들었다. 보통이라는 입장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장소이지만 어디로 이전하든 간에 그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을 피력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입장 역시 대부분 보통이라는 반응을 선택한 사람들과 비슷한 이유였고 소수의 사람들의 경우는 직장문제나 사업관련이유가 있었다.

〈표 11〉구좌읍 동복리 이전까지 봉개동 주민들의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유지에 대한 인식



개동 쓰레기 매립장 증설에 대한 인식

구좌읍 동복리로 매립장이 이전하기 전까지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유지에 있어서 매립장 규모 증설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는데 여기서 증설이란 4공구 이외의 새로운 공구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표11>에는 필요하다면 증설해도 된다가 32.1%로 나타났다. 증설이 필요하더라도 현재 있는 공간에 한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 23.6%이며, 이는 4공구 안에서 더 쌓아 올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안 된다 23.6% 그 외 기타 20.8%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증설을 하지 않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전 전까지의 매립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다.

(3) 주민 참여

봉개동에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조직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는 우리 봉개동은 동회 서회 명도암 봉개 본동 각 마을에서 7개통에서 2통 초등 3통 봉개 끝자락 쪽에[대기마트] 서회천은 5통 동회천 6통 명도암은 7통 각 통 마다 마을 협의회가 있고, 그 협의회에서 마을 총회 대책위를 뽑는데. 작년도 말에 대책위가 임기가 다되서, 그것을 새로 뽑았고,"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2, 김00씨)

"2007년부터 활동하게 됐는데 ... 그러니까 이제 6년? 7년? 정도 된 거죠. 임기는 6년씩으로 하고 있고요. · · · (중략) · · · 그때 당시에도 그때는 3명씩이 였어요 3명씩 각 마을에 3명씩 주민대표를 뽑아서 대표자를 구성했고 지금은 확대해서 투쟁하다 보니깐 확대해서 7명씩 뽑아서.."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2, 김00씨)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는 각 마을을 통합해 대표를 뽑아 활동하고 있다. 또한 초창기인 2007년에 비해 하는 일이 확대되어 인원수도 확대되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주민들 총회에서 각 마을 총회에서 대표와 주민들 모든 사람들 의견을 내놓을 수 없으니깐, 그 각 부분 부분 마을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대표로해서 전체로 모여서 의견을 의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 게 대책위이기 때문에. 그래도 모든 절차를 통해서 의결이 났기 때문에 그 의결에 따라하는 것이.."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2, 김00씨)

"협약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 있고, 협약을 하더라도 집행부 전체 의견이 있고 전체 마을 주민 전체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전부 하나로 수합을 해야할꺼 아니야. 마을에 또 무슨일이 있을 때 찾아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얘기도 드리고"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4, 홍00씨)

〈표 12〉 기자회견문내용

> 하나, 우리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계획에서 봉개동을 후보지에서 제외 하지 않는다면 쓰레기 매립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거부한다.
> 둘, 행정당국이 이설협약과 관련하여 약속 이행을 거듭촉구하며 봉개동을 제외한 타 지역 후보지 선정에 적극적인 행위가 없다면 우리는 매립장 연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도 거부하며, 4공구 매립 완료시에는 매립장을 폐쇄하엿다.
> 셋, 행정당국의 부당성을 알리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활동 할 것이며,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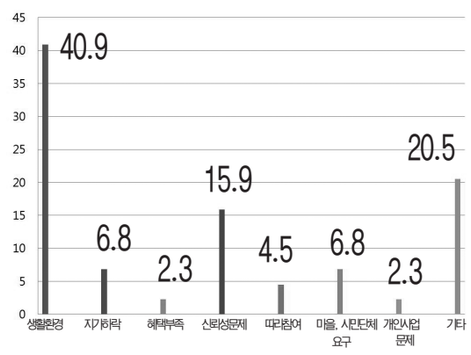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갖고서 지방정부와의 의사소통을 담당하고 있다.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런 활동들을 주민 회의에 참여하여 보고하고 있다. 또한,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홍보지를 발행하여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관련 계획들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위의 <표12>와 같이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2014년 1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확실히 표명하였다.

〈표 13〉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와 봉개동 주민들이 한 반대운동

> 「투쟁」 4호中 활동상황
> *봉개동 대규모 집회 및 가두시위
> 봉개동 집회: 250여명의 주민 참여
> *1인 시위
> 도청 앞 1인 시위:320명 주민 참여
> 마을 안 1인 시위:280명 주민 참여
> *주민설명회 저지집회
> 명도암 저지집회:70여명 주민 참여
> 동회천 저지집회:80여명 주민 참여
> 용강 저지집회:70여명 주민 참여
> 봉개본동 저지집회:150여명 주민 참여
> 서회천 저지집회:90여명 주민 참여
> 야간 릴레이 집회:140여명의 주민 참여

주민들은 서명운동, 주민설명회 저지집회, 1인 시위, 주민대책 위원회 활동, 대규모 집회 및 가두시위 등을 통해 반대운동에 참여하였다. 봉개동주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모여 활동 하고 있는 것을 <표13>를 통해 확인 해 볼 수 있다.

〈표 14〉 주민 반대 운동 참여 이유



반대운동에 참여하였던 대다수의 주민들은 생활환경문제(40.9%)로 인해 주민 반대 운동에 참여 하였고 그 외 신뢰성 문제가 15.9%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가 20.5%가 나왔는데 어느 한 가지 이유를 선택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생활환경문제를 선택한 경우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생활환경에 대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불편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신뢰성 문제를 협약서 불이행과 관련하여 선택하였다.

2) 경제적 요인

(1) 재산적 가치 하락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보면 봉개동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3, 송00씨)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지역 이미지 훼손은 재산적 가치 하락을 가져온다. 대책위원회의 총무님께서도 지역 이미지 훼손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셨다. 아무래도 봉개동하면 쓰레기매립장이 같이 떠오른다는 점에서 지역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산적 가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봉개동 주민들은 이때까지 보면 봉개동이 92년 이후에 인구가 줄었다는 겁니다."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1, 고00씨)

대책위원회 기획부장님께서는 92년 쓰레기매립장이 생긴 이후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로 인해서 봉개동의 인구가 줄었다고 하셨다. 봉개동에서 추구하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건강마을, 생태관광·휴양마을, 친환경인 농·목축업 마을로의 발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아 마을 전체적인 이미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깊었다.

"내가 보기에,, 내 생각으로는 그..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거부가 심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하나를 뽑으라면 지역 이미지 훼손인 거 같거든요. 그냥 내가 지켜보면서 느끼기에는..."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관련 공무원,남)

대책위원회분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소속의 환경관리사무소 직원들과의 면담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가 거론되었다. 환경관리사무소 직원이 보았을 때 주민들이 싫어하는 이유의 가장 주된 원인중의 하나가 지역이미지 훼손이라고 하였다. 이 면담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추후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 부지를 잘 사용하고 싶어 했던 점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긴 시간동안 지역이미지를 훼손당했다는 점에서 갈등요인이 되었던 것 같다.

(2) 보상 문제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보상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다. 그 이유로는 보상 방식으로 인한 마을 별 체감의 차이가 있었다. 혜택을 받았다고 한 회천마을의 경우에는 태양열 발전기를 집집마다 설치해준 개인적인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체감을 느껴 긍정적인 대답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한 곳에서는 마을 전체의 보상위주로 받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상에 대한 체감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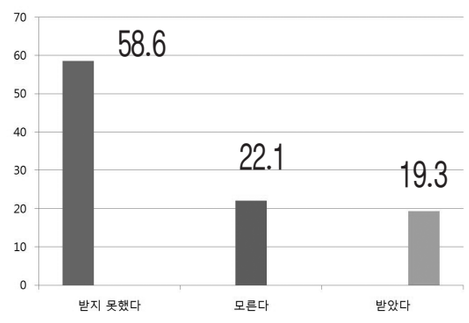
"개발은 전혀 안됐고. 이 협약서에도 보면은 이거 하는 기간 동안 피해시설을 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지역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들을 이행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게 전혀 안됐어요. 전혀 안되고 우리 ... 왜냐면 우리 행정이란 게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이 시설에 더 집중적으로 해 줄 수는 없거든요. 다른 경우 다 형평을 맞게 해야 돼. 공평하게 예산을 집행해야하기 때문에 봉개동이 특별하게 이 시설이 있다고 해서 해줄 수는 없어요. 행정에서는. 폐촉법에 나온 한계 내 그 범위 안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거지"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2, 김00씨)

"보상차원에서는 지원사업, 개발같은 것은 일부 되고있지만,"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2, 김00씨)

입지 과정 당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대책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상이 잘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되고는 있으나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다.

〈표 15〉 보상 여부



<표 15>를 보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58.6%로 많은 주민들이 보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아.. 내년까지 해갖고 우리, 아.. 저 총무님 110억이라? 110억. 2011년서부터 2016년까지 해갖고 110억을 받았거든. 그게 마을 별로 해갖고 전부다 그 주민숙원사업들 해결했지."

"2011년서부터 16년까지 해서 총해서 110억. 아 그게 지원비로 해서 다 나온거. 지원비로 해서 마지막 15억인데 내년에 받아갖고 사업하면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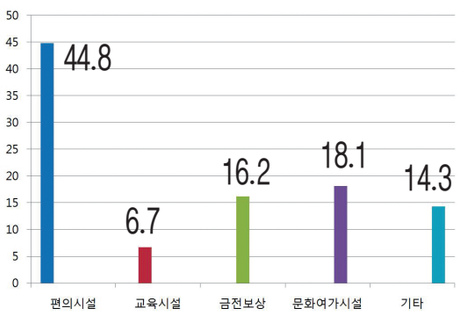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아 이 매립장으로 와서 나한테. 체감의 개념. 그런게 아직까지는 없고 지금 뭐 동회천, 서회천, 용강. 여기는 그 집, 가구 수가 많지 않아 가지구 가구 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 태양광 그 시설로 다 집집마다 지붕에다가 하는 거 있잖아."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4, 홍00씨)

최근 조사 결과 그 이전부터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보상 방식이 개인적 보상이 아닌 집단 보상의 형태로 나타났고 아직 실행단계에 미치지 못하여서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보상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하여서 지방정부와 주민사이의 갈등이 생겼다.

(6면으로 이어짐)

〈표 16〉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



대다수의 주민들은 편의시설(44.8%)을 원하였고 그 이외에는 문화여가시설 18.1%, 금전보상 16.2%, 교육시설 6.7%, 기타 14.3%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장학금과 세금감면 등으로 나타났다.

3) 기술적 요인

(1) 시설관리

봉개동쓰레기매립장의 경우 23년 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운영 되어 현재는 그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다. 최근 만들어 지는 쓰레기 매립장들의 시설과 달리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의 시설은 노후화됨으로써 쓰레기 냄새와 같은 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까지 야기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7년 5월 23일 음식물 쓰레기를 쌓아두고 불법으로 구덩이를 파헤쳐 매립하고 있는 3공구 현장이 목격되었던 사례가 있어 시설관리의 문제점 역시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지금은 소각장에는.. 소각장이 원래 들어올 때는 봉개동이 아닌 다른 지역이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모든 쓰레기처리시설은 한 군데에 집중해서 해야 해요. 경기도 잘 안되고,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일단 소각장은 나중에 얘기.. 매립장이,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는 기존에는 음식물분리시설 그런 게 안 되어있었어요. 모든지 매립 하는 시설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깐 악취가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2, 김00씨)

현재 제주도의 쓰레기는 봉개동쓰레기매립장의 소각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시설이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져 노후화됨에 따라 악취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환경문제 역시 더 뚜렷하게 나타나 갈등을 만들고 있다.

"소각장도 2014년도면 끝이거든요. 다 노후화되어 있어요. 소각장에는 기한이 있으니까. 딱 15년. 매립권은 ... 하는 거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20여년이면 오래됐으니까"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2, 김00씨)

소각장도 쓰레기매립장과 같이 2014년도면 기능이 다하며 최대로 운영 가능한 15년의 기한도 지난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노후화된 시설로는 환경문제와 함께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소각장도 예측을 못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들어오는 양 쓰레기 들어오는 양하고 태우는 양하면은 들어오는 양이 더 많거든. 그러니까 실패. 그렇잖아요. 예측을 다 못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소각장 방식도 그 때 당시는 비용 때문에 싸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3, 송00씨)

위의 내용을 보면 소각시설은 초기 건설 당시 비용 문제로 인해 낙후된 시설로 운영되어지고 있었다. 또한, 쓰레기 양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시설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다. 4공구 완료시점을 2016년으로 보았으나 2014년에 차게 되면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했던 협약서 내용인 4공구 매장완료시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는 협약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시설 관리의 문제점은 노후화와 더불어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2) 사후처리

사후처리란 쓰레기 매립장이 이전하고 나면 쓰레기를 매립했던 지역들 관리를 통해 후에 그 지역 매립장 부지를 개발하여 새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공원이 됐다든가 아니면 뭐 위락시설이 갖춰졌다든가 모든 게 판이하게 달라져서 매립장 위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거 자체가 그 사람들이 와서 볼 땐 우리 동네도 차라리 이런 걸 하면 좋겠다 느낌을 가질 수 있는거거든. 행정에서는 지금 현재로썬 그걸 바라고 있는거라. 우리가 잘됨으로써 또 행정으로서도 자랑거리가 될꺼거든. 다른 동네 가더라도 역시 여기 동네에는 영 잘되니까 다른 동네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하젠하믄 당연히 협조해주고 그게 잘 된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했거든."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3, 송00씨)

현재 주민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 매립지역을 공원으로 만들거나 위락시설을 갖추어 봉개동쓰레기매립장이 하나의 좋은 성공 사례가 되길 바라고 있다.

"환경적 측면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 예를 들어 어느 높이 이상은 만작을 시키되 어느 높이까지는 하되 어느 높이까지는 안하고 평탄작업을 할 수 있게끔 최종적으로 나중에 뭘 하나 구상을 하더라도 산을 만들어서 구상이 안 되잖아. 오름은 안되고 평지를 만들었을 땐 모든 걸 사후에 사후관리 부분에 또 구상할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몇 m이상은 넘지 말아라 해가지고 그거는 기준은 있지."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가 다 보면 거의 평 비슷하게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에 이제 지금 1, 2, 3공구에는 더 이상 위에다가 매립이 안 되잖아. 매립할 수 있는게 4공구인데, 그 4공구에다가 더 높이 쌓아버리면, 거기만, 4공구만 높이 올라가는 오름 현상처럼 돼버리거든. 하게 되면 그난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지금 계속 눌러가지고 눌러내려고 계속 눌러서 최소화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4공구가 완료 시점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제 그 이상 매립할 경우에는 다시 협약을 하려고 하지. 지금 시점이 그래서 지금 행정하고 지금 우리 마을하고 이제 어떻게 협약을 할 거고, 사후에. 여기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큰 문제지."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3, 송00씨)

하지만 위의 내용과 같이 계속 배출되는 쓰레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4공구 밖에 없어 이곳에만 높이 쓰레기를 쌓아 올리게 된다면 오름 현상이 생긴다. 이 점에서 주민들이 불만을 갖게 되어 갈등이 나타났다.

4) 환경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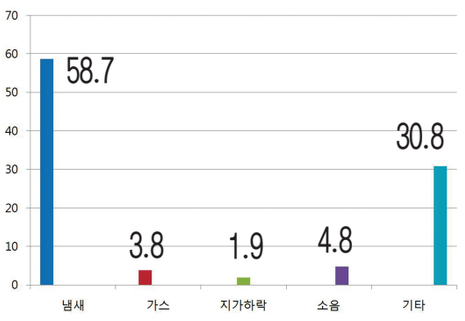
(1) 환경 오염 문제

쓰레기 매립지 입지 선정 갈등에서 환경 오염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쓰레기 냄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너무 피해가 심한거에요.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그때는 음식물 처리 시설 그런 것도 없고 모든 음식물도 다 매립하고 모든 재활용도 안 되고 그럼 매립이 많이 되니깐 냄새가 너무 나니깐"

"지금 이제야 생기는 매립시설들은 전부 다 덮개를 덮어가지고 여기에서 냄새를 차단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벌써 이십 이 몇 년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없거든. 명도암. 명도암이 제일 심하지. 윗 주변이 그 주변에서..여기 와흘 거기도 또 그 다음 전원마을 그 다음이 이 밑으로 회천쪽으로"

〈표 17〉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피해



<표17>를 통해 보면 주민들은 봉개동 매립장으로 받은 피해 중 가장 큰 부분을 냄새 문제(58.7%)로 체감하고 있다. 사전조사 당시에도 주민들은 냄새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토로하였다.

"알다시피 환경이라는 게, 계속 노력해도 그걸 회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가 설계도로 해도 환경과 뭐든지 할 때는 저희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검사를 받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 조사하고 설계하고, 그 설계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이 딱 적정시점이죠. 이걸 넘어 버리면 환경에 더 역효과가 나고, 피해가 더 심화된다는 거거든요."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1, 고00씨)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쓰레기 매립장 선정 논의 당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이전하는 것이 깨끗한 환경으로 회복하는데 적정시점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는 봉개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계속 유치하려는 의견을 피력하여, 봉개동 주민들과 갈등이 생겼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환경부에 제출해 의견을 여쭙고, 검토하게 되는데, 근데 봉개동은 경제성 도로포장 같은 것으로 인해 경제성의 순위는 상승했지만, 다른 시설들은 노후 됫고 매립지가 많이 돼서 더 이상 하게되면 피해가 더 악화되며, 환경부에서 동북리가 최적지로 의견서가 나왔기 때문에, 제주시는 경제성 때문에 이사비용, 기반시설 확장비용, 도로비용 등 이러한 비용이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봉개동은 영원히 경제성만 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지. 우리 나라 제주도가 정말 나중에 환경의 피해를 적게 보려면, 환경의 피해가 없게 만들어야 우리의 뒷세대에도 환경피해 없이 주는데, 이렇게 하면 환경피해가 가속화 되지요"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2, 김00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동복리가 최적지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방정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이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태도는 봉개동뿐만 아니라 미래의 제주도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길이라 보았다.

(2) 외부 환경적 요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해갖고 마무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 어차피 또 가니까 이제는. 이걸로 어떻게 마무리를 해나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4, 홍00씨)

동복리로 입지가 결정되면서 봉개동에 대한 관심은 봉개동 주민과 지방정부가 어떻게 합의하여 마무리 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갈등 상황에 대한 보도는 줄어들었고 봉개동과 지방정부가 합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고 있었다.

"행정이란게 그래. 이 시점에는 이슈화되니까. 많은 언론들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민들의 목소리 나오고 하니까 막 시끄럽고 하니까 이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 시설에 대한 관심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방법과 그 시설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예산도 어떻게 많이 해야 한다' 그런 관심을 주지만은 이제 입지선정이 딱 되고 지나버리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왜냐하면 그 지역의 그런 시설에 전혀 가는지(?) 그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 지역 주민만 이제 목소리 내는 거지. 제주시민과 제주도민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 정치인마저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 .행정공무원조차 마저도 그 가서 관리하고 계획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도 휴일이라고 ....(?)라고 그런 거는 적극적이란게 없어. 그래도 관심을 가지니까 그나마 이 정도지."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3, 송00씨)

"우리가 20여년째 해보니까 봉개동 주민들이 아무리 당시에 얘기해도 행정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런 상황 속 불과 뭐 얼마 안 되서 바로 뒤집는데 아무리 얘기해봤자 지역 주민만 애달프고 괴로운 일이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태되니까 사람들 관심이 사회적 이슈가 돼서 뭐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는다, 관심을 갖는다하지 이 상태가 조금 일정선이 지나고 그게 조금 되면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지원도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거지"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2, 김00씨)

입지 선정 결정 당시에는 봉개동 지역 주민들이 1인시위, 주민설명회 저지집회, 가두시위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언론도 이러한 활동에 관심을 가졌고 지방정부 또한 지역 주민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었다. 하지만 입지가 결정되고 나서 지방정부와 봉개동 주민간의 갈등상황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의 봉개동에 대한 관심 역시 줄어들었다. 이와 더불어 정치인들과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봉개동 주민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런 지원도 하려 하지 않아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 요인을 정치&행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 기술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봉개동의 갈등은 정치&행정적 요인에서는 정부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협약서 내용을 불이행하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높아졌으며, 경제적 요인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나타났다. 또한 기술적 요인에서는 시설 노후화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갈등이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내부적 요인에서는 쓰레기 냄새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한 반면에, 외부적 요인에서는 언론과 행정의 무관심으로 인한 갈등이 나타났다. 하지만 주민들이 주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과정과 조직적 행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동복리로 이전이 확실시 되었다.

현 상황에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된 것은 협약서 이행에 따라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신뢰관계가 진전되었고, 지방정부가 봉개동에 2016년 까지 110억 원을 보상하기로 약속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와 봉개동 주민들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이 동복리로 이전한 이후에도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합의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사후처리를 함으로써 남아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표18>은 쓰레기매립장 사후처리의 성공적 사례인 대구 수목원에 대한 내용이다.

〈표 18〉 대구수목원 사례

> 1997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대구 수목원은 과거 매립장이였던 부지에 대구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나온 흙으로 18m를 쌓아 그 위에 45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1개 테마로 구성된 수목원 중에서 분재원과 선인장온실은 시민 기증으로 이뤄졌다. 또한 산책로 주변 역시 시민들이 심은 나무가 주를 이룬다. 그 결과 처음에는 인근 주민들만 주로 찾다가 최근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들고 있다.

다음 <표 18>처럼 대구 수목원은 지방정부와 시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탄생했다. 그 결과 이전의 쓰레기 매립장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됨으로써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찾아왔다. 또한 45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짐으로써 환경문제도 개선되고 관광객의 증가는 대구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됐다.

이와 같이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역시 지방정부와 봉개동 주민들간의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사후처리를 통해 대구 수목원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구 수목원과 같은 공원이 조성된다면 지역의 이미지 회복을 통한 재산적 가치의 상승으로 인구증가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 이다. 또한 공원이 조성돼 매립장 부지에 수목이 형성되고 이에 쓰레기냄새와 같은 환경오염문제가 해결된다면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이다.

이와 같이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이 성공적인 사후처리를 한다면 매립지로 인한 갈등해결의 성공적 사례가 될 것이고, 이러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입지 갈등문제의 해결과정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타 지역의 주민들에게 하나의 모범사례로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끝)

※가작 논문은 인터넷으로 제공됩니다. 제주대미디어(http://news.jejunu.ac.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심사평

갈등의 사후관리와 과정의 중요성 강조

올해 백록학술상 응모 논문들 중에는 연구주제가 돋보이는 논문들이 많았다. 요즘 제주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협치'를 비롯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 문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해결 노력' 등 지역사회의 의제나 현안사항을 다루는 묵직한 주제들이어서 지역사회 니즈에 기여하거나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가장 돋보이는 논문은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과정 연구-입지를 둘러싼 갈등 해결 과정과 갈등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이었다. 이 논문은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의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합의 도출과정과 갈등 해결과정을 살펴보고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사이에 나타난 갈등요인들을 주민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으로 '지방정부와 봉개동 주민들간의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사후처리를 통해 대구 수목원 사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 날 수 있다 …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이 성공적인 사후처리를 한다면 매립지로 인한 갈등해결의 성공적 사례가 될 것이고 이러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입지 갈등문제의 해결과정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타 지역 주민들에게 모범사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여 갈등의 사후관리와 그 과정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 서술 과정에서 '대구사례' 를 표로 처리함으로 인해 '집중해 읽다가 갑자기 맥 빠지는 기분이 들게 하는' 등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제주사회의 최대 이슈인 '협치' 에 관한 논문 2편은 주제만으로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중심 협치의 방향' 과 '제주특별자치도 협치 행정모델에 대한 연구' 등 두 논문은 연구의 논리성과 내용의 구성과정에 있어 다소 불안정하며 돌출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였지만 결론으로 제시하는 정책제언은 위정자나 도내 언론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협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도정이 협치라는 새로운 통치원리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기존 통치방법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은 덮어둔 채 섣불리 협치라는 용어만을 내세우며 기존의 통치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행동을 답습한 결과로 보인다… 진정한 협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뿌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도지사에게 치우친 권력을 분산하고, 도의회는 도정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며 의회 내에서부터 협치 원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주특별자치도 협치 행정모델에 대한 연구).

시민사회는 전자 민주주의와 위원회 제도를 통해 도정의 정책에 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협력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도정은 시민사회의 협력에 적극 신뢰를 보여야 한다. 또한 의회는 그동안 도정에 보였던 대립적인 자세보다는 정책에 대한 신뢰와 연대가 필요하며 견제를 통해 권력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도정과 연대와 협력적인 자세에서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중심 협치의 방향).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 조사' 와 '제주지역화교육의 실태 분석' 은 앞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과정 연구' 와 같이 과 단위에서 매년 행해지는 지역사회조사 활동의 결과 보고서이다. 이 논문들 모두 연구의 논리성과 방법의 타당성 면에서 매년 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반가웠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보고서가 동일한 조사 틀, 서술과정과 방법에서 벗어나 주제나 조사대상, 서술자에 따라 약간의 탄력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들었다. 그리고 사회조사 보고서인 경우 굳이 연구의 한계 등과 같은 형식적인 서술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설문구성과 설문지를 부록으로 처리하는 것도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 조사' 는 아쉬움이 많았다 조사과정에서 학부모의 한국어 구사능력,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교우관계, 다문화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요구사항 등에 관한 실태분석을 하는 열정이 빛나 보였으나 정작 결론에서의 대안 제시는 보편적이고 교과서적인 수준으로 끝나버려 아쉬움이 컸다. 또한 본문에 벤다이어그램을 표로 표기 하는 등 오류도 곳곳에서 보였다.

'중국인 관광객 현황과 제주 유치방안 모색' 은 지역 현안에 대한 대학생의 고민과 개선노력이 매우 고맙게 느껴졌으며, '언어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중국인 유학생 인력풀 조성' 제안은 도정이나 협회에서 바로 반영시켜야 할 문제로 여겨진다.

'해동증자, 의자왕의 진실-백제 멸망과 의자왕에 대한 고찰' 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료를 찾고 정리한 논문 형식으로 엮어 내려는 필자의 열정이 느껴지는 논문으로 나 자신부터 역사적인 선입견에 사로잡혀 백제시대 마지막 왕인 '의자왕' 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편견을 고쳐 나가야 하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심사위원>

진 관 훈 (행정학과 겸임교수·경제학, 사회복지학박사)

최 낙 진 (언론홍보학과 교수·본지 주간)

당선 소감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과정 연구'

정부·주민간의 갈등 아닌 행정 신뢰성에 초점

김예사 고명수 강솔이

한 해를 함께한 이 논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이 논문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고 하나의 목표이자 무게 있는 짐이었다. 처음 논문을 쓰려고 했을 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었는데 어느새 도착했다는 것이 아직도 얼떨떨하다. 그런데 이렇게 당선에 입상돼 매우 기쁘다. 새벽까지 같이 남아 퇴고를 하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1월에 조를 정하고 지역을 선정, 주제를 선택했다. 여기까지도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다. 그 후 직접 지역조사를 가서 설문지도 돌리고 녹취도 했다.

조원들과 발로 뛰었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난다. 함께 뛰고 모아놓은 자료를 통해 논문을 쓰고 코멘트를 받아 고치고, 그렇게 12월까지 모든 여정을 거치며 달려왔다. 사회교육과 교수님들을 비롯한 선후배님들 특히 건오빠, 승진언니, 익전오빠, 동섭오빠, 혜경, 선후, 민재, 일준이에게 너무 고맙다. 또한 녹취하려고 몇 번이나 찾아 갔는데 매번 바쁘셔도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분들과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노력으로 논문이 완성될 수 있었다. 논문을 시작했을 때 느낀 설렘과 노력에 대한 첫 칭찬을 받았을 때의 설렘, 감사한 마음으로 소감문을 쓰고 있는 이 설렘 모두 너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논문은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의 입지선정과정을 갈등 해결과정과 갈등요인분석을 중심으로 썼다. 이러한 갈등문제가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제 선정당시 가장 이슈가 됐던 이 문제를 조사해 보려고 선택했다. 논문의 특징은 님비현상으로 인한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협약서 이행을 중심으로 신뢰성 문제라는 봉개 지역만의 문제를 다루려고 노력했다. 또한 쓰레기대란과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만 쓰레기매립장 관련 내용이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닌 계속적으로 그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여론과 언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어찌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을 쓰다 보니 고쳐도 고쳐도 계속 고칠 점이 보이고 모든 입장에서 내용을 다 알아보기 예민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아쉽기도 했다. 갈등문제를 다루는게 어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물이 나왔다는 점에서 완벽하지는 못했어도 도전했다는 점에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됐다.

다시 한번 논문을 쓰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수상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다.

교수시론

즐거운 일과 잘하는 일

이 윤 경
식품영양학과 교수

"즐기면서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때 까지 계속적으로 찾기를 멈추어선 안된다"

25살 여름, 인천공항에서 가족들에게 씩씩한 모습으로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오른 유학길. 도착한 미국 한 시골 동네 작은 공항, 이민용 짐가방을 끌고 봉고차에 올라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던 그 길들까지 아직도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강산이 변해 난 내가 꿈꾸던 교수가 되었고, 교수 명찰을 달고 학생들과 생활한지 만 2년을 채워가고 있다. 잘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난 내 일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즐겁다.

매 학기마다 30명 남짓한 학과 학생들과 상담을 한다. 이런 학생상담은 내게 수업, 연구보다도 어렵지만 의미 있게 생각되는 일이다. 조금씩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한번 상담을 한 학생은 그 다음 학기에도 계속 만남이 이어진다. 지난번 상담 내용을 상담 전에 잠깐이라도 읽어보고 상담을 준비하곤 한다. 그 중에는 나를 어려워하거나 쑥스러워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깊게 나누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몇 학기 동안 만났다고 제법 친숙해져 본인의 속내를 이야기 해주는 친구들도 있다. 그렇게 자기만의 고민들을 털어 놓을 때면 나 또한 자연스럽게 그런 친구들에게 더 관심이 가고, 하나라도 더 이야기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다.

짧은 상담 기간이지만, 내가 만나본 우리 학과 학생들의 학년별 성향이 보이기 시작한다. 1학년 학생의 경우 갑자기 너무 시간이 많아졌다고 좋아하기도 하고, 생각했던 대학생활이 아니라고 실망하기도 한다. 2학년은 조금씩 미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지만 뚜렷하게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대학원을 가고 싶은지 취업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3학년에 접어들면 마음이 조급해 지고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되며 일부 학생들은 목표를 정하기도 하고 목표를 위한 준비기간을 위해서 휴학을 결심하기도 한다. 4학년 학생들은 상담시간이 길어진다. 3학년 때 생각했던 계획들을 180도 변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과 맞물려 변수들이 생기게 돼 혼란을 겪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학생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은 '네가 지금 목표로 한 직장에서 10년 뒤 너를 그려볼 수 있겠니? 그리고, 그 그림 속 네 모습이 마음에 드니?' 이다. 본인이 가슴으로 찾은 일이 아닌,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 일을 본인에게 억지로 맞추려 하는 학생들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 어떤 이는 좋아하는 일은 그냥 취미로 하고, 일은 그냥 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학생들이 가슴이 뛰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 일을 잘하고 인정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2005년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대학 졸업 연설을 감명 깊게 여러 번 보았다. 개인적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던 연설이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다짐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연설에서 잡스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 속 자신에게 '오늘이 네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오늘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여러 날의 대답이 계속 '아니' 라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가슴이 뛰는 일을 찾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한다. 곧 새로운 제주대 졸업생들이 사회로 나가게 된다. 그들이 즐기면서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기를 멈추지 말기를(keep looking, don't settle)' 바란다.

돌하르방

얌체 기업에 묵직한 '돌직구' 날리는 해외직구족

백 승 규
기자

"투명한 가격정책 위해 관리 대상이 아닌 관리 기업 리스트를 작성해 경고장을 배포하길"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는 '해외직구족' 이 늘고 있다. 블랙 프라이데이, 박싱 데이 등 해외에서 유명한 할인 행사가 국내에도 크게 유행하는 모습을 보면 해외직구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 4월까지 세관을 통해 수입된 해외 인터넷 쇼핑몰품이 약 500만 건이며 4억8000만 달러 규모로 작년에 비해 50%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외직구족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동일한 제품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의 TV가 국내에서 한화로 500만원에 판매되는 반면 해외에서는 170만원에 판매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케이블 방송에 전파를 탔다. 관세와 배송료를 다 합쳐도 260만원을 넘지 않았다. 무려 반값으로 같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해외에서 제품을 구입해 들여오는 경우 배송비, 관세, 기타 비용 등의 추가로 인해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언론과 미디어 매체를 통해 해외직구의 장점들이 알려지면서 알뜰한 소비자들은 해외 쇼핑몰을 찾기 시작했다.

해외직구로 인해 새로운 직업들이 창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 한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가 도배된 쇼핑몰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을 위해 해외직구에 능통한 소비자가 일종의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매한 뒤 고객에게 다시 전달해준다. 이처럼 구매를 대행해주는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구매 대행을 운영한다. 해외직구를 즐겨하는 일부 대학생들은 자신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구매대행을 진행하고 있다. 홍보만 잘 된다면 밖에서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인기가 높다.

외적으로 흠이 없어보이는 해외직구는 국내 내수경기에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국내 소비가 이뤄지지 않아 생산이 위축되며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직구를 통해 외화가 계속 유출돼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된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국민이 돈을 써야 경기가 살아나고 공장이 돌아가며 임금이 상승하는 선순환이 이뤄줘야 하는데 직구로 인해 멀어진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분기별 카드 사용액이 5000달러가 넘으면 관세청에 통보해 관리대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말도 안되는 조치다. 각종 개인정보 유출이 염려되는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대놓고 사생활 침해를 하겠다는 소리이다. 말이 좋아 관리 대상이지 '당신은 국내 경제를 위협하므로 블랙리스트에 임명하겠습니다' 라고 들린다.

몰론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얻는 문제점도 있다. 보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 제품을 받았을 때 파손돼 있는 경우가 흔치 않다. 또한 쇼핑몰이 해외에 있으므로 AS문제와 반품 및 환불 등 서비스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를 했던 소비자들 중 97%가 다시 직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는 문제의 근원을 찾고 해결해야 한다. 해외직구를 줄이고 국내 소비를 늘리려면 기업들이 투명한 가격 정책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 소비자들이 왜 귀찮은 체계를 무릅쓰고 해외에서 같은 제품을 구매하겠는가? 더 싸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회비용을 따져봐도 해외직구를 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이다. 같은 제품을 가격을 다르게 측정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며, 같은 제품을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저렴하게 측정하는 것은 국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시야를 넓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자. 몇몇 해외직구족은 해외 기업에서 수입해온 제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더 비싸게 판매될 수 있다고 말한다.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독일 기업의 제품A가 한화로 2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미국에선 25만원 한국에선 30만원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해외직구에 중독된 소비자들에게 경고장을 날리는 것보다 소비자들을 해외직구에 중독시킨 국내 기업에게 경고장을 날리길 바란다.

독자기고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김 가 은
행정학과 1학년

벌써 방학이 시작된지 2주가 지났다. 지난 여름방학 때 계획은 많이 세워놓고 실천을 한 것이 없어 이번 겨울방학은 보람차게 보내려고 계획을 세워봤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해볼까 한다.

나는 다른 대학생들에 비해 학교를 늦게 입학해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국내는 물론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었다. 돌이켜보면 20대 초반 젊은 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배낭여행이나 기차여행 등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 이번 겨울방학도 여건이 되지 않아 다녀오지는 못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방학은 외국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학교 공부를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 교양을 위해서라도 앞으로의 외국어 공부는 필수가 됐다. 어학의 경우 단기간에 이룰 수 없고 꾸준한 노력을 요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약 2달간의 방학을 이용해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한다면 개강 후에 뿌듯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려 한다.

세 번째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해야 가장 남는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자격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격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비교적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이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한국사 자격증에 도전해 볼 생각이다.

학기 중에는 학과 공부하랴 과제하랴 바쁘다보니 따로 시간을 내서 취미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방학기간을 이용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학기 중에 쌓였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다가올 학기를 맞는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생각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꾸준히 독서를 하는 학생이 많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이 된 이상 독서로 교양도 쌓고 사회 여러 방면과 본인의 전공 심화를 위해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독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책을 많이 사두었지만 그동안 실천하지 못하고 먼지만 쌓인 채 방치했었다. 그렇기에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 5권의 책을 정독할 것이다.

지금까지 겨울방학을 좀 더 알차게 지내고자 여러 계획을 세웠다. 방학 기간은 누구나 나태해질 수 있는 시간이고 특히 겨울인 경우 이불에서 나오기 싫기도 한 시기이니 만큼 앞서 언급했듯이 이 짧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방학의 질과 개강 후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선배들의 말처럼 대학 4년의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 시기이다. 그렇기에 방학 또한 잘 계획하고 앞으로의 시간이라도 잘 활용한다면 지금 현재 누리는 즐거움보다 목표한 것들을 하나씩 이루는 기쁨이 더 클 것이다. 나도 지금까지는 만족스러운 방학을 보내지는 못했다. 그저 할 일없이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특별한 방학을 보내려고 한다. 많은 학생들이 방학에 본인에게 맞는 계획을 잘 세워 실천하고 방학이 끝나고도 만족할 수 있는 소중한 방학을 보냈으면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강 수 연
사학과 1학년

4·3사건 당시 군·경의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마을이 강제로 폐촌 되고 주민들이 학살당하거나 소개당해 현재까지 복원되지 못한 마을을 '잃어버린 마을' 이라 한다. 우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약칭 4·3위원회)가 규정한 '잃어버린 마을' 이라는 표현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면 표현 자체는 위 마을들의 정식 명칭이 아니다. '4·3 이후 오랜 기간에 걸친 난민 정착 복구 사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이 복귀하지 않아 폐허가 돼버린 마을', 즉 '4·3 사건으로 인해 소실된 마을' 이라는 다소 애매한 용어로 규정하다 마땅한 이름이 없어 현재까지도 '잃어버린 마을' 이라고 불리고 있다. 불확실하고 부적절한 명칭의 논란 속에 현재 마을들은 관리와 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어도 그 곳이 4·3사건의 아픈 역사가 담긴 곳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과거 마을의 땅이라 하더라도 주인이 있어 그 땅들이 아파트 개발, 농지 등으로 사용되어 마을의 흔적조차 남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잃어버린 마을이라고 해서 흔히 시외권 중산간 지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주시내 화북의 곤을동, 오등동의 죽성마을, 4·3사건을 배경으로 한 소설 '순이 삼촌' 의 작가인 현기영 작가가 살았던 노형의 함박이굴 등 잃어버린 마을은 우리 가까이에 많이 있다. 그 중 올레 18코스에 포함돼있는 곤을동은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고 풀이 자라면 벌초를 해주기도 하며 집터 보존이 잘 돼 다른 마을과 비교했을 때 보존과 유지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마을들의 경우 일부 표석이 세워진 마을이 있긴 하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학술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그 조차도 없이 잊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잃어버린 마을' 중 노형동 2242-2번지 방일리와 노형동 1632번지 드르구릉을 답사했다. 마을은 도시의 이미지가 강한 노형동에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나무와 풀이 무성히 자라있는 등 관리가 되지 못한 참담한 모습이었다. 방일리의 경우 집터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옛 마을의 흔적이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으며 드르구릉은 농터로 사용돼 옛 마을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로 인한 학술적 연구 지원을 받지 못한 '잃어버린 마을' 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멀어지고 있는 듯 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말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현재 제주도는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초와 바탕에는 우리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잊는 다면 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는 모래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 4·3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다. 실제로 찾아가 본 4·3의 아픈 역사가 담긴 장소들은 들은 것 이상으로 관리와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잃어버린 마을을 모두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땅의 소유주와의 문제와 예산 문제 등 여러 문제로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도민으로서 혹은 학생으로서 근처에 있는 잃어버린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쯤 찾아가보고 제주 4·3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젊음은 호학(好學)

동문칼럼

이 생 기
경영학과 82학번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원장

청춘은 배움을 즐겨라. 암울한 미래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다는 게 두렵기만 한 청춘이다. 풍요 속 빈곤의 덫에 걸린 청춘을 볼 때마다 아프다. 그래도 청춘이란 특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러운 존재다. 어느 세대이건 짙은 어둠과 같은 미래 때문에 고민하고 아프지 않았던 청춘은 없다. 그래도 건방 떨던 그 청춘이 얼마나 아름다웠던 시기였음을 언젠가는 알게 된다. 마치 바다와 같이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바다 곁에 있다. 아침마다 바다로 출근한다. 바다는 늘 반긴다. 바다는 바라 볼 때마다 다르다. 어떤 날은 소박한 아침 해가 바다에 안긴다. 억새꽃 밭으로 변한 바다는 감동적이다. 그러다가 바다는 폭풍과 함께 집채 만한 꽃을 피운다. 우주를 삼킬 듯 한바탕 춤을 추던 바다가 더 좋다. 이런 바다는 마치 자기성찰을 하고 늘 혁신 하는 것 같아서 좋다. 바다는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 온갖 물과 쓰레기를 받아들인다. 성내거나 투정도 없다. 그냥 웃는다. 그러다가 바다가 천지개벽을 한다. 그렇게 한바탕 난장을 치르고 나면 풍요로운 바다가 된다. 30만 종의 해양생물이 살고 있는 바다는 경이롭다. 그 바다에서 관용과 낮춤을 배운다. 바다는 쉼 없이 스스로 운동을 한다. 바다는 늘 통로를 만들어 준다. 바다는 배를 띄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깝게 해준다. 바다는 인류가 소통하는 장소이다. 바다는 개방적이다. 바다와 같이 청춘도 개방적이어야 한다. 개방적 태도는 자유로움과 설렘이다. 그 설렘은 꿈을 꾸게 하고, 배움에 미쳐야 그 꿈을 이루게 한다. 바다가 열려 있듯이 미래를 준비하는 청춘들에게는 배움의 자유로운 통섭이 필요하다.

자신이 전공하는 학문과 연계해서 주변 학문 분야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숲과 나무를 볼 수 있는 융합 학문이 산업 현장에서는 절실히 요구된다. 예컨대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사회과학이라든가 인문학을,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자연과학이든가 공학을 한다면 하나의 학문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학문은 행동양식이나 태도, 사고체계, 역량 수준을 형성하는 기초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학문 간에 융합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시 된 것 같다. 평소에 틈틈이 논어를 공부하다가 문장 한 구절이 눈을 번쩍 뜨이게 하고 번개처럼 머리에 꽂혔다.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전공학문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융합학문의 가치가 더 크다고 인식하던 차에 더더욱 설레다. 그 옛날 공자도 위정 편에서 '君子不器(군자불기)', "군자는 그릇이 되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 즉 그릇은 각각이 그 용도에 적합할 뿐 서로 통하거나 화합을 할 수 없기에 군자는 그릇처럼 하나의 관념, 행동에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학문 역시 개방적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청춘들이여, 부의 양극화, 정치적 갈등, 경기침체와 취업난 등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학문 간의 융합, 사람들 간의 소통과 배려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자. 더 답답할 때는 어려우면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영원하다는 금언을 이해하라. 그리고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당당해라. 그러면 된다. 아쉬운 것은 50대에 읽고 있는 논어를 만약에 20대에 공부했다면 나의 인생은 더 행복했을 것이다. 공자는 吾道一以貫之(오도일이관지)라 했다. 모든 도는 하나로 관통한다는 뜻이다. 그 道(도)는 忠恕(충서)이다. 진심으로 남과 같은 마음이 되라는 의미 즉 동감 또는 공감이다는 의미를 되새겨 본다.

여러분의 독자 의견·투고를 받습니다

원고 보내실 때 이름, 학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5천원을 드립니다.
☎064)754-2277 ~ 2279 이메일 press@jejunu.ac.kr

특별기고

공공요금 10% 줄이기에 나서자

이 용 균
사무국장

우리대학 공공요금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우리대학의 공공요금 총액은 '11년 30억원에서, '12년 34억원, '13년 38억원으로 증가하였고, '14년도에는 40억3천만원으로 추산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11년 20억원에서 '14년 25억 2천만원으로 26%, 상하수도 요금이 '11년 3억8천만원에서 '14년 8억7천만원으로 128% 증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공공요금 중에서 우리대학 부담이 급증하는 것이다. '11년, '12년에는 전체 공공요금에서 기성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4.2%, 48.2%이었으나, '13년도는 71.2%, '14년도는 72.7%를 넘고 있다. 금액으로는 '11년도는 기성회계 부담이 14억원에 그쳤으나, 3년만인 금년은 그 두배가 넘는 30억원이다. 종전에는 교육부가 공공요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했지만, 전반적인 세입감소와 국가장학금 증액으로 인해 예산이 없으니, 대학이 쓰는 전기, 수도 사용료는 자체적으로 감당하라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대학 재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대학은 지난 6년간 등록금 인하, 동결로 인해 올해 기성회비 수입은 378억원으로 타 거점국립대학의 1/2 내지 1/3에 불과하다. 반면, 매년 물가상승과 기본적인 교육시설 유지, 인건비, 교내장학금, 공금요금, 각종 용역비 지출 등 고정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학생교육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은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금년 11월 제2차 추경을 편성할 때, 교내 전 부서의 연간 운영비 20%, 업무추진비 10%를 회수하고, 예비비, 세계 잉여금, 불용액 모두를 동원했으나,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의 21.4% 밖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공공요금과 강사료, 시설 보수비 등 국고 지원이 줄어드는 내년도는 더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대학의 경우 공공요금 증가는 계속적인 건물과 기자재 확충, 정부의 공공요금 현실화 등 필치 못한 사정이 있으나, 학교 구성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절약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개별 냉난방기 사용 자제, 불필요한 전등 끄기, 정부의 실내권장 온도 준수, 수돗물 절약, 혼자 있을 때 실험실, 강의실에 있기보다는 열람실 이용하기, 저가항공 이용하기 등 공공요금 10% 절약 운동에 나서자. 공공요금 10%를 절약하면 4억원이 넘는 재원이 생긴다. 그로 인해 학생 110명에 전액 장학금을 주거나, 1천만원이 드는 교육 프로그램 40개를 운용할 수 있다. 지식인의 덕목은 아는데 그치지 않고 실행하는데 있다. 공공요금을 절약하여 학교 재원도 확충하고 아름다운 제주 자연도 보호한다면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봉사활동

“봉사 나눔으로 의미있는 방학 보내”

구세군 자선냄비·몰래산타운동 등 다양한 활동
도담도담 교육봉사동아리, 초·중등생들에 교육 지원

▶강은희(언론홍보학과 2)씨와 강재연(언론홍보학과 2)씨가 제주국제공항에서 구세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사진 위), 임정혁(무역학과 2) 씨와 김은이(영어영문학과 4)씨가 몰래산타운동본부를 통해 결손 가정의 어린이에게 선물을 전달해주고 있다(사진 아래).

대학생들을 머리 아프게 하던 시험이 끝나면, 달콤한 방학이 다가와 있다. 학생들은 두 달 간의 방학을 보내며 밀린 독서를 하거나, 잦은 술자리에 고개를 내민 뱃살을 빼고자 운동을 시작하기도 한다.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 새해를 맞으며 반가운 사람들과의 만남 대신 조금은 특별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는 이들이 있다. 그들의 겨울 이야기를 들여다 보자. 〈편집자주〉

◇사랑의 종소리,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

“사랑을 나눕시다. 작은 손길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수속을 마치고 짐을 부치는 등 정신없이 바쁜 제주공항의 혼잡한 소음 속에서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비행기 탑승을 위해 허겁지겁 뛰던 사람들도 빨간 제복을 입은 그녀들의 냄비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작은 정성을 담는다.

구세군이란 선교와 사회봉사 활동을 주로 하는 기독교의 한 교파이다. 봉사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붉은 세 다리 냄비걸이와 냄비 모양의 모금통, 제복을 입은 구세군 사관의 손 종소리는 매년 성탄이 가까워지면 실시하는 모금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구세군의 따뜻한 마음씨를 받아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는 학생들이 있다. 강재연(언론홍보학과 2)씨와 강은희(언론홍보학과 2)씨는 대학생이 된 이후 매년 겨울 방학을 친구들과 함께 구세군 봉사 활동으로 보낸다.

“수능시험을 본 뒤의 긴 방학기간 동안, 여유롭지만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낸 적이 있어요. 집에서 실컷 빈둥대거나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 제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방학에는 내가 남들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해보자, 하는 생각에 구세군 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강재연씨는 구세군 봉사를 통해 어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큰 감동을 받는다고 했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야 한다며, 초콜릿을 먹고 싶은 맘을 꾹 참고 고사리 같은 손에 담긴 돈을 커다란 냄비에 넣는 아이들에게 그녀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한번은 구세군 봉사를 하는 그녀에게 커피 한 잔과 도넛을 건네면서 좋은 일에 써주길 바란다고 큰 돈이 담긴 봉투를 준 노인도 있었다며, 구세군 봉사를 통해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운 면을 볼 수 있어서 무척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친구들도 어느덧 그녀를 든든하게 지원하는 구세군 봉사자들이 됐다. 이제는 그녀가 봉사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오늘은 구세군 봉사를 가지 않느냐고 먼저 묻곤 한다.

“어린 아이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말을 하며 나눔에 대해 가르쳐 주는 부모들을 보면 제가 더 마음이 훈훈해져요.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마음씨를 키워주면 그들이 자라나며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지인들에게 구세군 봉사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함께 봉사를 할 거에요.”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 ‘몰래산타운동’

어린이들에게 산타클로스는 꿈속에서 존재하는 신비로운 존재다. 착한 일을 해야하고, 울면 선물을 안주는 인자한 할아버지를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몰래’ 산타가 돼 기쁨을 안겨주는 이들이 있다.

몰래산타운동이란 경기도에서 청년 5명이 뜻을 모아 시작된 봉사활동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소외가족 등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시작된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수많은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어김없이 몰래산타는 묵직한 선물주머니와 함께 어린아이들을 찾았다. 서귀포시 동홍동일대의 제주지부를 방문해 깜짝 파티를 열어 어린이들을 기쁘게 했다. 산타의 등장에 놀란 아이들은 자신들의 꿈이 이뤄졌다며 무척이나 기뻐했다. 선물을 나눠주고, 준비한 마술쇼를 선보이면서 웃음을 잃어가던 아이들에게 환한 미소를 다시금 선물해줬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산타가 된 그들에게 사실 나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선물을 받지 못하냐고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기라도 하면, 한 학생이 아이를 얼른 품에 안아주면서 올해는 특별히 착한일 두 번을 하면 나쁜일을 없애준다면서 달래주기도 했다.

몰래산타운동본부 참여 학생들 가운데서도 조금은 특별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다. 봉사에 참가하고 있는 임정혁(무역학과 2)씨와 김은이(영어영문학과 4)씨는 CC(Campus Couple)관계다. 이들은 크리스마스 연휴기간동안 뻔한 데이트 코스를 다니는 것보다 봉사를 택했다고 말했다.

“물질적인 선물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부모님 없이 사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첫 봉사는 조금 엉뚱한 계기로 시작됐죠. 매년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영화나 카페에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특별한 하루를 보낼수는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특별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 커플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몰래산타운동을 권유하고 있다. 어린아이들이 간절히 바라던 꿈을 이뤄주는 것은 무척이나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그들은 언제든 아이들을 위해 선물 보따리를 들고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스승과 제자 모두 즐기는 교육봉사

도담도담 동아리는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활동 동아리이다. ‘걱정없이 자란 순수한 아이들’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인 ‘도담도담’이란 동아리 이름처럼 이들은 순수한 봉사활동의 정신을 펼치고 있다. 대학 내에도 각종 봉사동아리는 많지만, 학기중에는 시험이나 각종 대외활동으로 인해 막상 동아리의 활동에 소홀해 지는 경우가 있다. 도담도담 동아리를 만든 이들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 주 봉사활동 기간을 방학중으로 편성했다.

이런 이들에게 손을 벌린 곳은 아라사회복지회관이었다. 가정환경 탓에 학원 등의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봉사를 해주기를 권유했고, 도담도담 동아리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12월 19일, 이들은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교육시간을 마련했다. 만든이의 걱정을 없애줘서 평화롭게 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는 ‘과테말라 걱정 인형 만들기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자기 얼굴처럼 예쁜 인형을 만들겠다고 재료를 갖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내 인형이 더 귀엽다고 재잘재잘 떠들기도 했다.

인형을 만든 이후에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다. 각자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눴다. 아이들은 선생님들 덕분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두 번이나 할 수 있다며 즐겁게 하루를 보냈다.

도담도담 동아리의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은(관광경영학과 2)씨는 “방학 기간에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학기를 마무리하고 봉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란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아이들 또한 방학기간임에도 우리들을 만나러 발걸음을 옮긴다는 생각을 하면 늦잠을 자고 싶다가도 금새 눈이 떠진다”고 했다. 강수빈 기자

>> 2014년 안녕들하셨습니까?

ADIOS AMIGO! 2014, 더 나은 미래를 바라며

〈스페인어로 ‘잘있게 친구여’라는 뜻〉

새해가 밝았다.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해 올해의 목표 달성을 다짐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2014년은 유난히 비극적인 사건사고가 많은 해였다. 정치·사회의 혼란과 인명사고, 자연 재해와 더불어 각종 해프닝으로 빚어진 갑오년 속 큰 영향을 끼친 사건들을 선정해봤다. 새롭게 시작된 양의 해 2015년은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편집자주〉

◇부산외대 OT,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캠퍼스의 낭만을 꿈꿔왔던 새싹들이 무참히 짓밟혔다. 2월 17일 경주시에 위치한 마우나오션리조트가 붕괴됐다. 이 날 부산외국어대학에 입학 예정이었던 신입생들이 체육관에서 OT(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부산외대 신입생 9명과 이벤트 업체 1명이 사망했다. 붕괴 원인은 안타깝게도 폭설로 인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지붕이 무너졌다.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부실공사의 결과물이다.

보통 체육관은 외곽에만 기둥이 설치돼 있어 천장 중앙을 지지하는 기둥이 없다. 또한 체유관은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2009년에 완공된 이후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다. 그 결과 비참한 참사가 일어났다. 현재 제2롯데월드 안전성의 논란이 많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청해진 해운 ‘세월호’ 침몰

대한민국을 울음 바다로 만든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4월 16일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과 제주도로 출발한 여행객들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한 것이다. 무려 295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아직도 9명은 실종된 상태이다. 세월호가 침몰된 후, 언론들은 탑승객들을 대부분 전원구조했다고 발표했으나 거짓보도로 판명됐다. 구조되지 못한 학생들은 배 안에서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메시지를 보내 국민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침몰된 직후 수색이 진행돼 왔으나 기상 악화로 인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세월호를 이끈 선장과 일부 선원들은 가장 먼저 탈출해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현재 법원의 심판을 받은 상태다. 청해진 해운 사장 유병언은 사고가 일어난 후, 검찰 소환에 불응했으며 전국을 부랑하다 변사체로 발견됐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표명하기 위한 세월호특별법을 규정하라는 시위가 광화문에서 펼쳐졌다.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소속된 회원들이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우롱하고 방해해 한동안 이슈가 되기도 했다. 최근 10여년 동안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가 세월호 사건임에 틀림없다.

◇22사단 임 병장 총기사건

6월 21일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사건이 발생했다. 무장 탈영병 임모 병장은 동료들에게 수류탄 1발, 실탄 10여 발을 발사해 5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임 병장은 사건장소에서 8km정도 떨어진 인근 야산에서 자살시도를 했으나 생명에 지장 없이 체포됐다. 재판장에서 임 병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범행 이유는 부대 내 따돌림이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관심 병사였던 임 병장은 희화화한 낙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후임들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기 사건은 절대적으로 사회가 군을 무관심해 일어난 비극이다. 군대가 가진 특유의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랑스런 대한의 청년들을 위해 당국은 충분한 복지를 보장하길 바란다.

◇마왕 신해철 사망

27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대학가요제에 혜성처럼 등장한 그룹 무한궤도의 신해철이 향년 46세로 숨을 거뒀다. 그가 불렀던 ‘그대에게’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던 노래이다. 2009년 그는 S병원에서 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위밴드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3년뒤 같은 병원에서 위밴드 제거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신해철은 10월 20일부터 열을 동반한 통증을 호소했으며 결국 27일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현재 언론은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병원의 의료과실로 보도하고 있다. 의문투성인 마왕의 죽음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란다.

◇대한항공 조현부사장 땅콩 회항

온 국민을 황당케 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12월 5일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지연시켰다. 단지 땅콩 때문이다. 일등석에 앉아있던 조현아 부사장에게 승무원이 땅콩을 건넸다. 조 부사장은 땅콩이 그릇에 담아있지 않고 봉지 채 줬다며 승무원을 다그쳤다. 또한 박창진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박 사무장은 그러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고 태블릿PC를 통해 매뉴얼을 조 부사장에게 직접 보여줬다. 하지만 조 부사장은 박 사무장이 괘씸하다며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고함을 쳤고 기장에게 비행기를 회항시키도록 지시했다.

결국 박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린 후 비행기가 출발을 했다. 이후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대한항공 측은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한 대한항공은 땅콩리턴 사건의 내부 고발자를 찾는 등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에서 큰 이슈화가 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대한’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항공회사가 명예를 회복하려면 꽤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 재판소가 12월 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키로 결정했다. 결정문에서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내란을 조장한다며 해산이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즉 재판소는 통진당은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통진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잘못한 것이지 통진당을 지지하는 10만명이 가담한 것처럼 여겨 해산의 근거로 맞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다. 이석기 의원, 이정희 의원 등 사회에 논란을 빚은 인물이 많았지만 소수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백승규 기자